

김효주의
LPGA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합니다!



LPGA 메이저 대회 역대 최소타 기록 경신! | 역대 세 번째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김효주 선수가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LPGA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현재 KLPGA투어 상금순위 1위인 김효주 선수의 우승으로 KLPGA 선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KLPGA는 앞으로도 우수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한국골프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KLPGA

KLPGA members

KLPGA members

2014 vol.20 10월호

COVER STORY

못해봤던 것들,
다해보기

이정민 인터뷰

TOUR PREVIEW

October
KLPGA TOUR

RISING STAR

두 개의
심장으로
뛰는 맥박!

박지영 인터뷰

FOCUS

행동대장 조윤희,
세상을 향해
날개짓 하다

조윤희 인터뷰

CAMPAIGN

‘로고송
함께 부르기 캠페인’
촬영현장 스케치



ISSUE

레저세 반대
스포츠 단체장
공동성명서

KLPGA 멤버십 매거진 2014년 10월호



LEE DONG SOO[®]
SPORT

(주) 이동수 F&G 대리점 문의 : 02)3218-4003 www.leadongsoogolf.co.kr, www.leadongsooshop.com

KLPGA TOUR 2014 SPONSORS & PARTNERS

KLPGA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KLPGA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규 투어 타이틀 스폰서



드림 · 점프 · 시니어 투어 타이틀 스폰서



마케팅 파트너



❖ 코오롱제약
Sports Nutrition

FUEL FOR YOUR LIFE & SPORTS

www.facebook.com/kolon.sportsnutrition

구입상담문의 : 070.7768.8440

KISS
체육과학연구원
제품 공동개발 및 유통권점

- ☑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임상실험제품, 2012 (에너지필, 패스트리커버 대상)
- ☑ 도핑 테스트 안전검증 (트라이애슬론 선수대상 검증, 트라이애슬론연맹 확인)



운동 전, 승리를 위한
에너지 업그레이드!
에너지필 ENERGY FILL
섭취방법 : 운동 1시간 전
운동 에너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
전용 뉴트리션 제품
소비자가 : 42,000원
(1box/12포입)



운동 중, 파워 보충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
**퍼펙트파워젤
PERFECT POWER GEL**
소비자가 : 43,000원
(1box/24포입)

운동 중, 단백질 및 에너지 보충!
**하이프로틴바
HIGH PROTEIN BAR**
소비자가 : 70,000원
(1box/30개입)



운동 중, 전해질 공급과
아미노산 보충!
**리얼에너지워터
REAL ENERGY WATER**
섭취방법 : 운동 전, 중, 후
빠른 수분(전해질)보충과
경기력 향상 지원
소비자가 : 15,000원
(1Box/10포입)



운동 후,
활기찬 컨디션을 위해!
**패스트리커버
FAST RECOVER**
섭취방법 : 운동 후 10분 이내
운동 후 컨디션 개선을 위한
스포츠 전용 뉴트리션
소비자가 : 39,000원
(1box/12포입)

Before
Endurance

During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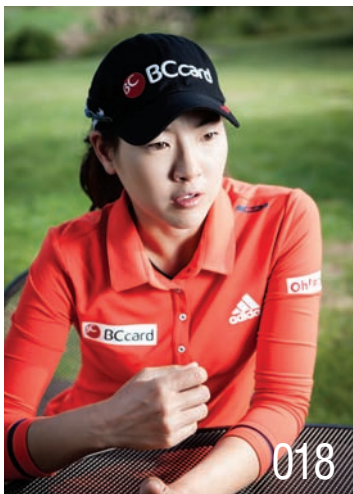
After
Recovery

We provide an advanced protein supply program and a tailored sports nutrition plan to assist both recreational and elite level athletes to enhance the performance and achieve their potential and fulfill their ultimate sporting aspirations.

❖ **KOLON PHARMA**

Contents

KLPGA 멤버십 매거진 2014년 10월호



004 / SCHEDULE

투어스케줄

2014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시니어투어 스케줄

008 / TOURPREVIEW

투어프리뷰

미리 둘러보는 10월의
KLPGA TOUR

010 / KLPGA NEWS

KLPGA 뉴스

KLPGA 주요 뉴스 및
공지사항

016 / CAMPAIGN

캠페인

'로고송 함께 부르기 캠페인' 촬영 현장 스케치

018 / COVERSTORY

커버스토리

창설대회인 'YTN · 볼빅 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다승자의 대열에 합류한
이정민을 만나다.

022 / RISING STAR

라이징 스타

'KLPGA2014 Kan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3차전'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차지한 박지영 인터뷰

024 / SPECIAL

스페셜

기부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벤트가 아닌
'기부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는 KLPGA

028 / MENTOR & MENTEE

멘토-멘티

신규회원들에게는 프로입문과 적응을 돕고,
기존 회원들과는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종의
재능기부의 형태인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멘토링 모집

032 / ISSUE

이슈

스포츠 단체가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부과에 대한
프로스포츠 단체장 공동성명서 발표

034 / SPONSOR

스폰서

케이بلTV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채널로 탄생한 YTN

036 / BEST PHOTO

베스트 포토

KLPGA투어 박준석 공식사진기자가 뽑은
베스트 명장면

040 / FOCUS

포커스

협회의 이사직을 맡으며 선수와 협회의
가교역할, 거기에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열성 커리어우먼 조윤희를 만나보자.

044 / HEALTH

건강한 골프

슬병원 나영무 원장에게 듣는 골프 크리닉

046 / BEAUTYINFO

뷰티인포

토니모리 메이크업 제안

048 / MEMBER'S TALK

멤버스 토크

서로 몰랐던 일상을 공유하며 회원들끼리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050 / COLUMN

명예기자

KLPGA 명예기자들의 기획기사

052 / FAN LETTER

그녀에게 전해주오

사랑하는 선수에게 보내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

053 / PAGODA STAR

파고다스타의 생활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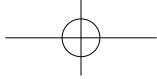
미용실 이용 편

054 / MEMBER'S SERVICE

멤버스 서비스

회원 혜택과 회원 동정

발행일 : 2014년 9월 25일 VOL.20호
발행인 : 강춘자
발행처 :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13(대치동)
송석빌딩 8층
TEL : 02-587-2929 FAX : 02-539-6003
www.klpga.com



SCHEDULE

2014년 10월의 주요 일정 및 행사안내

OCTOBER 2014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9	30	1	2	3 개천절	4	5
KLPGA 201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4차전 (그랜드 CC)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6차전 (무안CC)		OKSavingsBank 박세리 Invitational (솔모로CC)		
6	7	8	9 한글날	10	11	12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7차전 (무안CC) KLPGA 201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5차전 (그랜드 CC)		제1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블루헤런GC)			
13	14	15	16	17	18	19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8차전 (무안CC)		LPGA KEB · HanaBank Championship (스카이72 GC)		
20	21	22	23	24	25	26
KLPGA 201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6차전 (그랜드 CC)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9차전 (무안CC)		KB금융 STAR 챔피언십 (남촌 CC)		
27	28	29	30	31	1	2
2014 KLPGA 정회원 선발전 (군산 CC)					서울경제 여자오픈 (미정)	

투어, 꿈을 향한 무한도전!

KLPGA 2014 TOUR SCHEDULE

대상포인트

메트라이프 · 한국경제 제36회 KLPGA 챔피언십 종료시점

순 위	이 름	포인 트
1	김효주	400
2	고진영	327
3	이정민	325
4	장수연	301
5	이민영2	286

상금순위

순 위	이 름	상 금
1	김효주	819,161,923
2	장하나	488,413,938
3	이정민	480,248,068
4	백규정	453,561,047
5	허윤경	410,403,421

신인상포인트

순 위	이 름	포인 트
1	고진영	1677
2	백규정	1630
3	김민선5	1498
4	강예린	1051
5	서연정	863

평균타수

순 위	이 름	평균타수
1	김효주	70.39
2	장하나	70.63
3	고진영	71.11
4	이민영2	71.34
5	전인지	71.41

평균퍼팅

순 위	이 름	평균퍼팅수
1	한승지	29.25
2	김보경	29.78
3	이승현	29.85
4	백규정	30.02
5	유고은	30.03

드라이브 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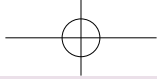
순 위	이 름	거 리
1	김세영	269.69
2	장하나	265.90
3	김민선5	264.20
4	한상희	263.75
5	박주영	26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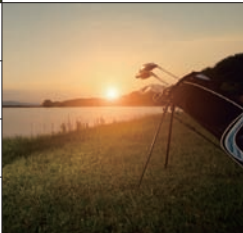
4 APR

5 MAY

6 JUN

1			
2		제4회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일정 : 5월 2일 ~ 4일 장소 : 무주안성 총상금 : 5억 우승자 : 이승현(23, 우리투자증권)	
3			
4			
5			
6			
7			제4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일정 : 6월 6일 ~ 8일 장소 :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 5억 우승자 : 백규정(19, CJ오쇼핑)
8			
9			
10	제7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일정 : 4월 10일 ~ 13일 장소 :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 5억 우승자 : 이민영2(22)		
11			
12			
13			
14			S-OIL 챔피언십 인비테이셔널 일정 : 6월 13일 ~ 15일 장소 : 엘리시안 제주 총상금 : 6억 우승자 : 전인지(20, 하이트진로)
15			
16		2014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일정 : 5월 16일 ~ 18일 장소 : 일동레이크 총상금 : 5억 우승자 : 김세영(21, 미래에셋)	
17			
18			
19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일정 : 6월 19일 ~ 22일 장소 : 베어즈베스트 청라 총상금 : 7억 우승자 : 김효주(19, 롯데)
20			
21			
22		2014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일정 : 5월 22일 ~ 25일 장소 : 라데나 총상금 : 6억 우승자 : 윤슬아(28, 파인테크닉스)	
23			
24			
25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4 일정 : 4월 25일 ~ 27일 장소 : 가야 총상금 : 5억 우승자 : 백규정(19, CJ오쇼핑)		
26			
27			
28			
29			
30		E1 채리티 오픈 일정 : 5월 30일 ~ 6월 1일 장소 : 휘닉스스프링스 총상금 : 6억 우승자 : 허윤경(24, SBI저축은행)	
31			



7 JUL	8 AUG	9 SEP	10 OCT	11 NOV	12 DEC
	한화금융 클래식 2014 일정 : 7월 31일 ~ 8월 3일 장소 : 골든베이 총상금 : 12억 우승자 : 김효주(19, 롯데)			서울경제 여자오픈 일정 : 10월 31일 ~ 11월 2일 장소 : 미정 총상금 : 5억	
			OKSavingsBank 박세리 Invitational 일정 : 10월 3일 ~ 5일 장소 : 솔모로 총상금 : 6억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일정 : 7월 4일 ~ 6일 장소 : 웨이하이 포인트 총상금 : 5억 우승자 : 김효주(19, 롯데)					
				ADT CAPS Championship 2014 일정 : 11월 7일 ~ 9일 장소 : 미정 총상금 : 5억	한일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2014 일정 : 12월 6일 ~ 7일 장소 : 일본 미요시 CC 총상금 : 6,150 만엔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일정 : 8월 8일 ~ 10일 장소 : 인터불고 총상금 : 5억 우승자 : 이정민(22, 비씨카드)		제1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일정 : 10월 9일 ~ 12일 장소 : 블루헤런 총상금 : 8억		
		YTN · 볼빅 여자오픈 일정 : 9월 12일 ~ 14일 장소 : 코스카 총상금 : 5억 우승자 : 이정민(22, 비씨카드)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일정 : 12월 12일 ~ 14일 장소 : 중국 심천 미션힐 GC 총상금 : 55 만불
	Nefs Masterpiece 2014 일정 : 8월 14일 ~ 17일 장소 : 힐드로사이 총상금 : 6억 우승자 : 고진영(19, 뎀스)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4 일정 : 11월 14일 ~ 16일 장소 : 잭니클라우스 총상금 : 5억	
			LPGA KEB · Hana Bank Championship 일정 : 10월 16일 ~ 19일 장소 : SKY 72 총상금 : 200만불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일정 : 7월 18일 ~ 20일 장소 : 오라CC 총상금 : 5억 우승자 : 윤채영(27, 한화)		메트라이프 · 한국경제 제36회 KLPGA 챔피언십 일정 : 9월 18일 ~ 21일 장소 : 아일랜드 총상금 : 7억 우승자 : 백규정(19, CJ오쇼핑)			
	MBN 여자오픈 with ONOFF 일정 : 8월 21일 ~ 24일 장소 : 더스타후 총상금 : 5억 우승자 : 김세영(21, 미래에셋)				
			KB금융 STAR챔피언십 일정 : 10월 23일 ~ 26일 장소 : 남촌 총상금 : 7억		
		KDB대우증권 CLASSIC 2014 일정 : 9월 26일 ~ 28일 장소 : 휘닉스파크 총상금 : 6억 우승자 : 전인지(20, 하이트진로)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일정 : 8월 29일 ~ 31일 장소 : 하이원 총상금 : 8억 우승자 : 장하내(22, 비씨카드)				*투어별 색인표
					종료대회

*위 대회는 여러사정에 의해 상금, 일정 및 대회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4 APR	5 MAY	6 JUN	7 JUL
1	 드림투어 점프투어 시니어투어 일정 			
2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7차전 일정: 7월 2일 ~ 3일 장소: 그랜드CC 총상금: 7천만원 우승자: 박지영(18 · 하이원 리조트)
3				
4				
5				
6				
7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군산CC 드림투어 4차전 일정: 5월 7일 ~ 8일 장소: 군산컨트리클럽 총상금: 7천만원 우승자: 이선애(25)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배 점프투어 8차전 일정: 7월 7일 ~ 8일 장소: 보성CC 총상금: 3천만원 우승자: 김보령(19 · 불빅)
8		KLPGA 2014 그랜드 · CAPTAIN SANTA 점프투어 1차전 일정: 5월 8일 ~ 9일 장소: 그랜드CC 총상금: 3천만원 우승자: 김다은(18 · 롯데마트)		
9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일정: 4월 9일 ~ 10일 장소: 군산컨트리클럽 총상금: 7천만원 우승자: 이연주(28 · 캘러웨이)		KLPGA 2014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5차전 일정: 6월 9일 ~ 10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원 우승자: 김희정(43 · 야마하)	
10				
11				
12		KLPGA 2014 그랜드 · CAPTAIN SANTA 점프투어 2차전 일정: 5월 12일 ~ 13일 장소: 그랜드CC 총상금: 3천만원 우승자: 김보령(19 · 부산골프교)	KLPGA 2014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3차전 일정: 5월 12일 ~ 13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원 우승자: 홍희선(43)	
13				
14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군산CC 드림투어 5차전 일정: 5월 14일 ~ 15일 장소: 군산컨트리클럽 총상금: 7천만원 우승자: 양채린(19)		
15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군산CC 드림투어 2차전 일정: 4월 15일 ~ 16일 장소: 군산컨트리클럽 총상금: 7천만원 우승자: 김빛나(25)			
16				
17	KLPGA 2014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1차전 일정: 4월 17일 ~ 18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원 우승자: 정일미(42 · 엔터팩)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배 점프투어 5차전 일정: 6월 17일 ~ 18일 장소: 보성CC 총상금: 3천만원 우승자: 손승희(18)	
18				
19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6차전 일정: 6월 19일 ~ 20일 장소: 그랜드컨트리클럽 총상금: 7천만원 우승자: 윤선정(20 · 토니모리)	
20				
21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7차전 일정: 7월 21일 ~ 22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원 우승자: 김희정(43 · 야마하)
22		KLPGA 2014 그랜드 · CAPTAIN SANTA 점프투어 3차전 일정: 5월 22일 ~ 23일 장소: 그랜드CC 총상금: 3천만원 우승자: 박지영(18 · 하이원리조트)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8차전 일정: 7월 22일 ~ 23일 장소: 그랜드CC 총상금: 7천만원 우승자: 이주미(19)
23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6차전 일정: 6월 23일 ~ 24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원 우승자: 이광순(45 · 불빅)	
24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9차전 일정: 7월 24일 ~ 25일 장소: 그랜드CC 총상금: 7천만원 우승자: 양승애(25)
25			KLPGA 2014 보성CC · 카스코배 점프투어 6차전 일정: 6월 25일 ~ 26일 장소: 보성CC 총상금: 3천만원 우승자: 손주희(18)	
26				
27		KLPGA 2014 그랜드 · CAPTAIN SANTA 점프투어 4차전 일정: 5월 27일 ~ 28일 장소: 그랜드CC 총상금: 3천만원 우승자: 안소현(19)		
28				
29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군산CC 드림투어 3차전 일정: 4월 29일 ~ 30일 장소: 군산컨트리클럽 총상금: 7천만원 우승자: 이선애(25)	KLPGA 2014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2차전 일정: 4월 29일 ~ 30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원 우승자: 이광순(45 · 불빅)	KLPGA 2014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4차전 일정: 5월 29일 ~ 30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원 우승자: 김희정(43 · 야마하)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8차전 일정: 7월 29일 ~ 30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원 우승자: 김희정(43 · 야마하)
30				
31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0차전



	8 AUG	9 SEP	10 OCT		11 NOV
1	일정 : 7월 31일 ~ 8월 1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홍주연(19)	KLPGA 2014 Kan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4차전 일정 : 9월 1일 ~ 2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채지은(21)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6차전 일정 : 10월 1일 ~ 2일 장소 : 무안CC 총상금 : 7천만원		
2					
3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2차전 일정 : 9월 3일 ~ 4일 장소 : 신안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이혜정(19 · 신평고3)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20차전 일정 : 11월 3일 ~ 4일 장소 : 무안CC 총상금 : 7천만원
4					
5					
6					
7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7차전 일정 : 10월 7일 ~ 8일 장소 : 무안CC 총상금 : 7천만원	KLPGA 201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5차전 일정 : 10월 7일 ~ 8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8					
9					
10					
11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9차전 일정 : 8월 11일 ~ 12일 장소 : 신안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채영주(18 · 양곡고2)	KLPGA 2014 Kan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5차전 일정 : 9월 11일 ~ 12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김희명(19 · MFS)			
12					
13	KLPGA 2014 Kan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1차전 일정 : 8월 13일 ~ 14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박성원(21 · 중앙대)				
14					
15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9차전 일정 : 9월 15일 ~ 16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우승자 : 이영미(51)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8차전 일정 : 10월 15일 ~ 16일 장소 : 무안CC 총상금 : 7천만원		
16					
17					
18	KLPGA 2014 Kan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2차전 일정 : 8월 18일 ~ 19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유연채(20)				
19					
20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0차전 일정 : 8월 20일 ~ 21일 장소 : 신안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석자우(22)		KLPGA 201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6차전 일정 : 10월 20일 ~ 21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21					
22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10차전 일정 : 9월 22일 ~ 23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4천만원 우승자 : 김희정(43 · 야마하)	KLPGA 2014 무안CC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9차전 일정 : 10월 22일 ~ 23일 장소 : 무안CC 총상금 : 7천만원		
23					
24		KLPGA 201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3차전 일정 : 9월 24일 ~ 25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지한솔A(18 · 영신고)			
25	KLPGA 2014 Kan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3차전 일정 : 8월 25일 ~ 26일 장소 : 센추리21 총상금 : 7천만원 우승자 : 박지영(18 · 하이원리조트)				
26					
27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1차전 일정 : 8월 27일 ~ 28일 장소 : 신안CC 총상금 : 3천만원 우승자 : 석채민(20)				* 투어별 색인표
28				드림투어	
29		KLPGA 201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4차전 일정 : 9월 29일 ~ 30일 장소 : 그랜드CC 총상금 : 3천만원			점프투어
30				시니어투어	
31					종료대회

* 위 대회는 여러사정에 의해 상금, 일정 및 대회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OCTOBER 10 KLPGA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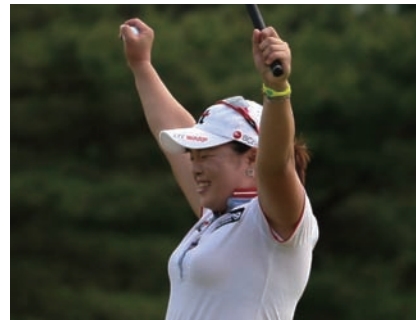


10월의 필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메이저 대회 두 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서 펼쳐지는 스타들의 진검 승부를
미리 점검해 본다.

글 _ 김현주

[바로잡습니다]

KLPGA Members 9월호 10페이지 투어프리뷰에서 '메트라이프 · 한국경제 제37회 챔피언십'을 '메트라이프 · 한국경제 제36회 챔피언십'으로, 본대회 우승 시 '5년'의 시드권이 주어진다는 부분을 '4년'으로 바로잡습니다.



OKSavingsBank 박세리 Invit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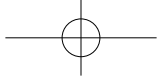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여주 솔모로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될 'OK SavingsBank 박세리 Invitational' 대회는 러시앤캐시를 계열사로 둔 아프로서비스 그룹이 예나래, 예주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으로 출범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동시에 박세리를 초청해 대한민국과 세계 여자 골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박세리의 위대한 위상을 되새기고, 기존 러시앤캐시 골프대회가 강조해오던 '행복나눔 채리티'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자라나는 골프 유망주, 제2의 세리키즈 육성을 후원하기 위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2010년, 상금의 10%를 기부하며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이란 타이틀로 시작된 이 대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골프계에 기부 문화를 정착시켰다.

디펜딩 챔피언 장하나는 지난해 이 대회의 우승을 계기로 다승왕과 상금왕, 대상까지 거머쥐는 발판을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공동3위에 오르는 등 최고의 기량으로 2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아프로서비스 그룹이 설립한 러시앤캐시 배정 장학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김효주, 전인지, 김민선5, 백규정 김지희 등의 우승도전도 거셀 전망이다.



코스소개 - 솔모로CC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솔모로CC는 1991년 한일 컨트리클럽으로 개장하여 36홀 전 코스 리노베이션 및 클럽하우스 리모델링을 마치고 2006년 솔모로 컨트리클럽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솔모로'는 '소나무가 많이 모이는 곳'이란 뜻의 순수한 우리말로 소나무처럼 푸르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모시겠다는 골프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살린 60만평의 광활한 구릉지에 36홀, 총 13,852야드의 빅 코스로 조성됐다. 대자연과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코스는 체리, 퍼시먼, 파인, 메이플의 4코스로 구분되어 각 코스마다 차별화된 골프의 묘미를 선사한다. 파인 앤 메이플코스는 비교적 온화한 여성적 이미지로 에버리지 골퍼들이 즐겨 찾으며 체리 앤 퍼시먼코스는 업다운을 겸비한 다이내믹 함으로 도전적인 골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제1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KB금융 STAR 챔피언십



제1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2014년 KLPGA투어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제1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에 걸쳐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 대회는 KLPGA투어 4대 메이저대회 중, 단일 스폰서 후원으로는 최장을 자랑한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0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내 골프대회의 바람직한 문화를 선도한다는 취지로 시작,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시원한 맥주의 맛이 색다른 즐거움을 더해주는 이 대회는 스폰서의 특징을 잘 살린 조형장치물이 대회장 곳곳에 설치돼 갤러리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디펜딩 챔피언은 장하나. 이에 맞서는 대항마는 후원사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시즌 3승을 버리고 있는 전인지다. 'S-OIL 챔피언십 인비테이셔널'에서 시즌 첫 승을 기록한 그는 지난 2011년 아마추어 시절에도 이 대회에 참가해 쟁쟁한 프로들과 선두 경쟁을 벌였을 만큼 이 대회와는 인연이 깊다.



코스소개 - 블루헤런GC

1992년 개장한 블루헤런GC는 경기도 곤지암에 위치한 18홀 규모의 골프장이다. 코스는 한국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전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서코스과 웅장하고 공격적인 미국스타일의 동코스로 구분된다. 티잉그라운드에 서면 천연계곡과 넓은 연못의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코스가 골퍼들에게 긴장감과 함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페어웨이 폭은 넓으며 엷다운이 적당히 조성돼 있어 초보 골퍼들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프로선수들은 '4D 코스'로 이름 붙은 15번홀부터 18번홀까지를 주목해야 한다. 'Difficult'로 이름 지어진 15번홀(파4)은 길이가 420야드나 되는데 그린우측에 워터해저드가 있어 공략이 쉽지 않다.

'Dangerous' 홀로 불리는 16번홀(파3)은 그린의 해저드로 둘러싸여 티샷이 빗나가면 위험한 홀이다. 17번홀(파4)은 'Dead or Live', 18번홀(파5)은 'Drive to Death'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어려워 방심했다가는 순위가 요동칠 수 있다.

KB금융 STAR 챔피언십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KLPGA투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STAR 챔피언십'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곤지암에 위치한 남촌CC에서 열린다. 여기에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KB금융그룹 소속 선수들도 더해져 그야말로 국내파와 해외파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고된다.

디펜딩 챔피언은 이승현. KB금융그룹에는 메이저여왕 박인비를 비롯해 양희영 등의 해외파와 꾸준한 성적을 내며 호시탐탐 우승을 노리는 안송이와 오지현 등의 국내파가 있다.

이 중 박인비의 활약이 가장 기대된다. 박인비는 지난 7월 USLPGA 투어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국가대표다운 활약을 펼친 것에 이어 '마이어 LPGA 클래식' 준우승, 메이저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2연패, '캐네디언 퍼시픽 위민스 오픈' 3위를 거두는 등 후반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못 이룬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서운함을 후원사가 주최하는 국내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 그의 행보가 궁금하다.



코스소개 - 남촌 CC

곤지암에 위치한 남촌CC는 천연계곡과 넓은 연못의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코스를 자랑하는 18홀 규모의 국제 규격을 갖춘 골프장이다. 총면적 32만평의 부지에 전장 7,139야드로 조성된 남촌CC는 전체적으로 엷다운이 적고 페어웨이 폭이 넓어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전 홀에 걸쳐서 블라인드 홀이 없고,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의 보이다보니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천연계곡을 활용한 연못과 아름다운면서도 변화무쌍하게 조성되어 있는 아일랜드 홀이 골퍼의 전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천덕봉 산자락 아래 구릉에 위치한 동코스는 샷밸류가 뚜렷한 전략적인 코스로 도전적인 골퍼에게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코스다. 숲과 연못으로 조성된 서코스는 천연계곡과 넓은 연못의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심미적 코스다.

10월 온 라인 참가신청안내



2014 • OCTOBER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KLPGA 정회원선발전						
		2014 KLPGA 정규투어 (11월 대회신청)				
6	7	8	9	10	11	12
2014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KLPGA 정회원선발전 (신입준회원/점프13~16차전)					
27	28	29	30	31	1	2
				2014 KLPGA 정규투어 (12월 대회신청)		
				2015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정회원 선발합격)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EST
체육인재육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Sports Talent

제2회 여성스포츠인 토크콘서트

여성스포츠인의 국제무대 진출 활성화

부제 : 여성 IOC위원 진출을 꿈꾸다

2014. 10. 14(화) 14~18시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사회 : 임오경(서울시청 감독)

1부

- **[국제]** 여성 IOC위원 진출을 꿈꾸다(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전략)
이원재 국제스포츠협력센터(SC) 사무총장
- **[사례발표]** 국제스포츠기구 진출경험담
김나미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 **[국내]** 여성스포츠리더를 꿈꾸다(국내체육단체 임원진출 확대방안)
김양례 한국스포츠개발원 박사

2부

- **[사례발표]** 여성스포츠리더 육성사업(그룹프로젝트 우수작 발표)
국제여성스포츠개발기구(WG) 국제컨퍼런스 유치방안
- 청중과 함께하는 속풀이 토크
사회 및 토론자



- 신청 및 문의 : 전화신청 - 업무지원팀 김민주 대리(02-560-4426)
- 신청기간 : 10/1(수)~10/8(수)

2015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운영계획 안내 (2014년 09월 18일 기준)

1. 대회개요

가. 대 회 명 : 2015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예선/본선)

다. 장소 및 사용코스 : 무안컨트리클럽

나. 대회일정

1) 예선 : 2014년 11월 11일(화) ~ 14일(금) / 예선 각 조 2R 실시

1) 예선 : 서 / 남코스

※ 위 일정은 참가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 예선 사용코스는 참가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본 선 : 2014년 11월 18일(화) ~ 21일(금) / 본선 4R 실시

2) 본선 : 동코스

2. 2015년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운영계획 안

구 분	경기방식	운영계획안
2015년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전홀 샷건 방식	- 총 참가인원을 각 조로 나누어 Random 편성 - 예선 각 조 2R 실시, 총 115명 본선 진출
2015년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		- 총 144명 참가 [예선통과자(115명) + 예선면제자(29명)] - 본선 4R 실시

※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면제자(총 29명)

가. 당해연도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개최 2주전 대회(서울경제 여자 오픈) 종료 후 일자 기준 [11월 3일(월)]

KLPGA 정규투어 상금순위 51위부터 70위까지.(20명) [2014년 4월 12일 제6차 이사회 의결사항]

나. “가”항의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상금순위 예선 면제자 중 시드권자 발생시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개최 2주전

종료대회(2014년도는 서울경제 여자오픈 종료시점) 기준 KLPGA 정규투어 상금순위 차순위자가 예선 면제.

다. 당해연도 드림투어 전체 20개 대회 종료 기준 상금랭킹 7위부터 15위까지.(9명) [2013년 10월 23일 제6차 이사회 의결사항]

※ “2015년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최종 운영안은 참가신청 마감 후 공지할 예정임.

3. 2015년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코스 운영계획 안

구 분	코스 운영계획안	비고
2015년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 최종 신청 인원이 512명 이내 일 경우 : 서코스, 남코스만 사용 및 예선전 2일 실시 - 최종 신청 인원이 512명 이상 일 경우 : 서코스, 남코스, 동코스 사용 및 예선전 3일 실시	※ 예선전 참가신청 마감 후 최종 신청 인원에 따라 사용 코스 결정
2015년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	- 동코스 사용 및 본선 4R 실시	

4. 2015년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참가신청일정 운영계획 안

가. 참가 신청금 : ₩ 220,000원 (※ 예선, 본선 구분 없이 1번만 납부)

나. 참가 신청일자 운영 계획

구 분				신청자격	참가신청 일정
시드 전	정규투어	예선	신청대상자	신청 마감일 기준 정회원, K-Tour Member만 참가신청 가능. (당해연도에 입회한 신입 정회원은 필히 이 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0월 06일(월) 오전 10시 ~ 10월 24일(금) 오후 05시
			추가 신청대상자	2014년 KLPGA 정회원선발전을 통한 신입정회원 (정회원, K-Tour Member)만 참가신청 가능.	10월 31일(금) 오후 03시 ~ 11월 03일(월) 오후 05시
		본선	신청대상자 (예선면제자)	2015년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대회요강 기준 예선 면제자 ※ 2014년도 KLPGA 드림투어 최종상금 순위 7위 ~ 15위까지 기록한 선수 ※ 서울경제 여자오픈 종료시점(2014년 11월02일)기준 KLPGA 정규투어 상금 순위 51위 ~ 70위까지 기록한 선수	11월 03일(월) 오전 10시 ~ 11월 05일(수) 오후 05시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장하나, 시즌 2승 달성!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총상금 8억 원, 우승상금 1억 6천만 원) 최종일, 장하나(22·비씨카드)가 시즌 2번째 우승이자 통산 6승을 일궈냈다.

2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오르며 챔피언으로 출발한 장 하나는 1번홀(파4,357야드)부터 버디를 잡으며 기선제압을 했다. 이후 영리한 코스 매니지먼트 능력을 뽐내며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69-65-70)로 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2번째 대회인 ‘2013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우승 이후 8개월 16일만에(259일)만에 우승한 장 하나는 “드디어 시동을 건 것 같다. 샷에 대한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더 열심히 해서 오늘의 우승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KLPGA 유소년 골프 클리닉’으로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갈래 초등학교와 처음 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장 하나는 “후반에 버디 기회를 많이 놓쳐서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경기를 보러 와준 갈래초등학교 학생들이 웃으면서 파이팅을 외쳐서 힘이 났다. 오늘도 갈래초등학교에 잠시 들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KLPGA 구자용 회장의 지명으로 시상식 후에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게 된 장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많이 접했다. 루게릭병 환우들의 고통을 이해하자는 의미인데,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가볍게 하는 것 같다. 지난주에 첫 도전을 했지만 웃는 이벤트가 아닌 기부 형태의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도전했다.”고 말했다.



YTN·볼빅 여자오픈 이정민, 시즌 2승 수확!

‘YTN·볼빅 여자오픈(총상금 5억 원, 우승상금 1억 원)’에서 이정민(22·비씨카드)이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67-67-69)로 지난 달 열린 ‘제1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후 약 한 달 만에 시즌 2승을 수확했다.

2위에 한 타 앞선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이한 이정민은 전반 한 타를 줄이며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 때 배희경(22·호반건설), 김민선(19·CJ오쇼핑) 등의 거센 추격을 받았지만 후반 11번홀(파5,512야드)에서 3번 우드로 한 세컨드 샷을 핀 우측 1미터 지점에 붙이며 이글을 기록, 단독 선두로 뛰어 올랐다.

이후 13번홀(파3,174야드)에서 3퍼트로 인한 보기를 범하기도 했으나 18번홀(파4,395야드)에서 버디를 낚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우승 후 이정민은 “샷 감이 좋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흔들린 부분이 없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승을 확정 지었던 18번홀 버디 상황에 대해서는 “긴장하면 세게 치는 버릇이 있다. 내리막이 심해서 최대한 부드럽고 짧게 쳐서 홀 앞에 세우려고 했는데 들어가 버렸다. 갑자기 우승 퍼트가 나와서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정민은 “통산 4승을 하는 동안 메이저 대회 우승을 못해봤다. 올시즌 메이저대회가 3개 남아있는데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남은 시즌 목표를 밝혔다.

고진영(19·넵스)이 최종라운드에서 1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66-69-71)를 기록, 김하늘(26·비씨카드), 김민선(19·CJ오쇼핑)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메트라이프·한국경제 제36회 KPGA 챔피언십 백규정, 메이저 켄 되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LPGA의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메트라이프·한국경제 제36회 KPGA 챔피언십(총상금 7억 원, 우승 상금 1억 4천만 원) 마지막 날, 백규정(19·CJ오쇼핑)이 시즌 3승이자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선두와 7타 차 공동 10위로 최종라운드에 임한 백규정은 3번홀에서 3퍼트를 범하며 보기를 했지만 이후 6번홀과 8번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백규정은 11번 홀에서 54도웨이로 한 세 번째 샷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면서 샷 이글을 기록해 순식간에 2타를 더 줄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백규정은 12번홀과 18번홀에서도 타수를 줄이며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경기를 마쳤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홍란(28·삼천리)은 4년 만에 우승을 노렸지만 14번홀 병커샷 실수로 빠아픈 더블 보기를 범하며 최종라운드에서 2타를 잃어 백규정과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5,480야드)에서 진행된 연장 승부에서 홍란은 10미터 거리에서 한 버디 퍼트가 들어가지 않아 파로 경기를 마치고 백규정은 세 번째 샷을 핀 좌측 2미터 거리에 붙이며 버디를 잡아 메이저 대회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즌 목표를 묻자 백규정은 “원래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만 신경 썼는데 요즘에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깊어진 것 같다. 좀 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성적은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따라올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KLPGA 2014 Kangsang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3차전 박지영, 드림투어 시즌 2승 달성!



박지영(18 · 하이원리조트)이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67-69)로 드림투어 시즌 2승을 거뒀다. 선두에 2타 뒤진 단독 2위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박지영은 전반 3번홀(파5, 495야드)에서 보기를 범하며 주춤했으나 6번홀(파3, 156야드)과 7번홀(파4, 352야드) 연속 버디로 만회했고, 후반에도 2타를 더 줄이며 역전승에 성공했다. 지난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7차전'에서 드림투어 첫 우승을 거둔 박지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드림투어 상금 순위 2위로 뛰어 올랐다. 박지영은 지난 'KLPGA 2014 그랜드 · CAPTAIN SANTA 점프투어 3차전'에서도 우승한 바 있다.

KLPGA 2014 Kangsang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4차전 채지은, 10언더파 134타로 생애 첫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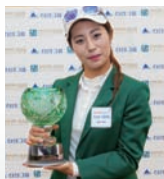


채지은(21)이 최종합계 10언더파 134타(66-68)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1라운드에서 2타차 단독 선두를 달렸던 채지은은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8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4타를 줄이며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채지은은 "얼떨떨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생각 외로 덤덤하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에 채지은은 "중간 중간 위기가 많이 찾아 왔다. 특히 15번홀에서 더블보기를 범하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17번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우승을 예감했다."며 활짝 웃었다.

KLPGA 2014 Kangsang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5차전 김희망, 연장접전 끝에 생애 첫 우승!



김희망(19 · MFS)이 생애 첫 우승을 거뒀다.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70-67)로 동타를 기록한 정재은(25), 채지은(21), 이연주(28 · 한국골프대학2), 백소진(20 · 숭실대1)과 함께 연장전에 돌입했고, 두 홀의 연장 승부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김희망은 "3차 대회 마지막 대회다. 잘 마무리하고 무안으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 감격스럽다. 게다가 첫 우승에 연장전도 처음이라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우승 소감을 말했다.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0차전 석지우, 연장 접전 끝에 생애 첫 우승!

석지우(22)가 연장 다섯 홀 승부 끝에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다. 선두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로 최종라운드에 오른 석지우는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타를 줄이며, 동타로 경기를 마친 김정연(18), 인주연(17), 채영주(18 · 양곡고2) 등과 함께 연장 접전을 펼쳤다. 다섯 홀의 연장 승부 끝에 우

승의 영광을 차지한 석지우는 "연장 승부에서 전혀 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말한 뒤, "이번 대회 직전에 태광CC 이성민 프로님의 도움으로 퍼트 라인을 읽는 법과 루틴을 바꿨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우승 요인을 밝혔다.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1차전 석채민, 생애 첫 우승컵 들어올려

석채민(20)이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선두와 한 타 차 공동 2위로 출발한 석채민은 전반, 후반 각각 2타씩 줄이는 안정적인 플레이로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68-68)를 기록,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경기 후 석채민은 "원했던 우승이라 정말 좋다. 어젯밤부터 왠지 모르게 우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경기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마지막 홀 2미터 거리의 버디 퍼트를 실패해서 기대를 안했는데 중계팀에서 말씀해 주셔서 우승인 것을 알았다."며 기뻐했다. 최종라운드 전략에 대해서는 "스코어에 신경쓰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경기하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보통 2라운드에는 성적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 세타 정도만 줄이면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후반 홀에서 버디 2개를 잡으면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2차전 이혜정, 생애 첫 우승컵 들어올려!

이혜정(19 · 신평고3)이 연장 3차 접전 끝에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타차 단독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이혜정은 버디 2개, 보기 1개를 묶어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67-71)로 이날 3타를 줄인 고나혜(18 · 홍천농업고3)와 함께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 두 번째 홀까지 팽팽했던 승부는 세 번째 홀에서야 끝이 났다. 고나혜가 핀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서 파퍼트를 놓친 반면 이혜정은 침착하게 파세이브에 성공하며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우승 후 이혜정은 "그동안 우승할 기회를 많이 놓쳤는데 어렵게 우승하게 돼서 더 기쁘다. 오늘 샷이 불안해서 버디 찬스가 많이 없었으나 퍼트가 잘 돼서 타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KLPGA 2014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9차전 이영미, 시즌 첫 승 달성!



이영미(51)가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71-69)로 시즌 첫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1라운드를 공동 4위로 마친 이영미는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2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5개 잡아내며 3타를 더 줄여 역전 우승했다. 경기를 마친 후 이영미는 "기쁘다. 시즌 초반 허리 부상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우승하게 되어 활기분하다."며 우승 소감을 말한 데 이어, "우승을 기대하진 않았다. 허리 부상이 회복되면서 연습을 시작하니 감이 돌아왔다. 역시 연습만 큰 성과를 얻는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다."고 말했다.



KLPGA 구자용 회장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KLPGA는 구자용 회장이 27일(수) 루게릭 병 환자를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MBN 여자오픈 with ONOFF'의 우승자 김세영(21·미래에셋)의 지목을 받은 구 회장은 아이스 버킷 챌린지

를 시행하고, KLPGA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korealpga)에 영상을 공개했다.

구 회장은 "최근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비롯해 하이원리조트 오픈 같은 채리티 대회의 개최 등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무척 반갑다. 어려운 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KLPGA 프로 선수들이 자선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4년 제6대 KLPGA 홍보모델 스크린세이버 공개!



KLPGA는 스튜디오 사진을 활용한 스크린세이버(화면보호기)를 제작해 공개했다. 홍보모델 10인의 개인 컷을 이용한 스크린세이버 10개와 단체 스크린세

이버 1개, KLPGA 로고타입 1개 등 총 12개의 스크린세이버를 제작했으며 KLPGA를 사랑하는 팬은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좌측메뉴-미디어센터)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컷을 활용한 KLPGA 스크린세이버는 골프웨어를 입은 선수들의 사진에 다양한 효과를 주었으며, 각 선수 이미지에 맞는 배경 색상을 배치해 색다른 느낌을 부여했다. 하단에는 선수의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현재 시각을 표시해주어 활용도가 높다.



KLPGA, 하이원리조트 오픈 참가 선수에 언론 인터뷰 교육 시행!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이 열리는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KLPGA투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언론 인터뷰 교육을 시행했다.

KLPGA는 언론 노출과 인터뷰할 기회가 잦아 지지만, 인터뷰에 대한 기본 교육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법, 올바른 용어 선택, 기타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할 기회가 많지 않은 KLPGA투어 선수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본 교육에는 프로 선수로서의 기본 마음가짐, 언론 인터뷰 기술, 이미지 메이킹, 서비스 의식 등 기본적인 언론 대처법부터 골프 전문 용어, 표준 어휘 등 프로골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까지 포함된 회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다.



2014 KLPGA 삼천리그룹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자선골프대회 열려

경기도 이전에 위치한 휘닉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삼천리그룹과 함께 '2014 KLPGA 삼천리그룹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KLPGA는 지난 1990년부터 나눔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재단, 양로원, 화상재단, 한국펄벅재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에 기부활동을 계속해왔다. 특히, 이날은 KLPGA 참가 프로 중 희망자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아마추어와 동반 라운드를 할 수 있는 동반 라운드권을 기부할 수 있으며, 동반 라운드권 경매를 통해 자선기금 1억 원을 마련해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 기부한다.

KLPGA 두번째 캠페인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KLPGA 캠페인' 영상 공개



골프 대중화와 올바른 골프문화 형성을 위한 3편의 캠페인 중 제2편인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KLPGA'를 공개했다.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KLPGA' 캠페인은 KLPGA 홍보모델의 필드 위 감동의 순간들과 선수와 하나되는 KLPGA팬의 영상을 화면에 담았다. KLPGA와 SBS골프가 공동 제작하는 '골프 대중화와 올바른 골프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은 매월 약 100회 이상 SBS골프를 통해 방영되며 KLPGA 공식 홈페이지(하이라이트 영상),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2014 KLPGA 회장배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 Presented by NIKEGOLF 본선

중 · 고 · 대학부 유해란, 통합 1위 오르다!



중 · 고 · 대학부에 출전한 유해란(13·단월중1)이 최종합계 2언더파 214타(76-69-69)로 통합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KLPGA가 주최,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나이키골프가 후원하는 'KLPGA 회장배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는 국내 유소년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를 육성하고 골프 대중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열렸으며, 미래의 한국여자프로골프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 탄생의 등용문이자 기회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선 최종일 선두와 2타 차, 4위로 최종일에 임한 중 · 고 · 대학부의 유해란이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2언더파 214타로 통합 1위를 차지했고, 초등부에서는 최종합계 5오버파 22타를 기록한 신유진(12·월평초6)이 1위에 올랐다. 유해란과 신유진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장학금 1백만 원이 수여됐다.



CAMPAIGN

캠페인 | '로고송 함께 부르기 캠페인' 촬영현장 스케치

KLPGA 홍보모델, 걸그룹으로 변신!



제6대 KLPGA 홍보모델이
'로고송 함께 부르기 캠페인' 영상 촬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로고송은 여자프로골퍼의
밝고 세련된 이미지와
세계로 널리 뻗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
친근한 KLPGA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가사에 담아 표현했다.

제6대 KLPGA 홍보모델이 KLPGA 전속 걸그룹으로 변신해 '로고송 함께 부르기 캠페인' 영상을 촬영했다.

대치동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 영상 촬영에서 선수들은 필드 위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잠시 뒤로 한 채, 가수로 변신해 로고송을 부르고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쳤다.

제6대 KLPGA 홍보모델 장하나(22 · 비씨카드)는 "한 달 전부터 로고송을 들으면서 오늘을 준비했다. 로고송이 귀에 잘 들어오고,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 KLPGA의 많은 회원을 대표해 협회를 홍보할 수 있어 기쁘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한 명의 홍보모델인 김효주(19 · 롯데)는 "로고송이 더 많이 알려져서 갤러리 분들도 따라 부를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내가 로고송 홍보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기쁘다. 또 항상 골프만 하다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해서 정말 즐겁다."고 말했다.

KLPGA는 골프 대중화와 올바른 골프문화 형성을 위한 3편의 캠페인 중 제1편과 2편을 공개한 바 있다. 캠페인 영상 1편, 'YOU ARE THE BEST GALLERY'와 2편인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KLPGA'를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마지막 3편인 '로고송 함께 부르기' 캠페인도 KLPGA 로고송만의 특색 튀는 음원과 선수들의 새로운 모습 공개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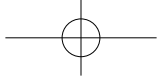


세계 넘버원 KPGA 세계를 향해 힘차게 티샷! ♪ 세계 넘버원 KPGA 세계를 향해 다함께 티샷!
골프 꿈나무의 미래 세계 최고 선수들의 보금자리 ♪ 푸른 잔디와 퍼스함 햇살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 기분
세계 넘버원 KPGA 세계를 향해 힘차게 티샷! ♪ 세계 넘버원 KPGA 세계를 향해 다함께 티샷!
항상 우리 곁엔 KPGA 꿈과 희망 한가득~ ♪ 행복한 순간들, 함께해요 KPGA
세계 넘버원 KPGA 세계를 향해 힘차게 티샷! ♪ 세계 넘버원 KPGA 세계를 향해 다함께 티샷!
세계 넘버원 KPGA 세계를 향해 힘차게 티샷! ♪ 세계 넘버원 KPGA 세계를 향해 다함께 티샷!



KPGA 로고송 휴대폰 '통화연결음', '벨소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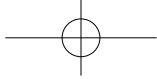
- ▶ 통화연결음 : KPGA 공식 홈페이지(게시판-KPGA뉴스)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KPGA 회원에 한해 무료 제공.
- ▶ 벨 소 리 : KPGA 홈페이지(게시판-KPGA뉴스)에서 세 구간의 벨소리(도입부, 1절, 2절) 중 한 개를 선택해 휴대폰에 저장한 후 벨소리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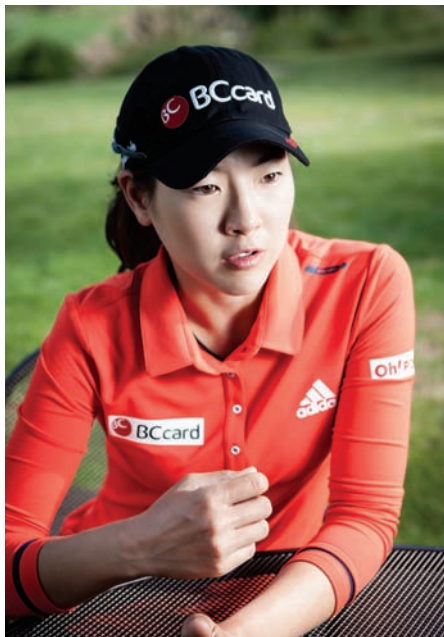
COVER STORY

커버스토리 | 이정민





못해봤던 것들, 다해보기



이정민은 지난 8월, 올해 처음 창설된 '제1회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했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역시 창설대회인 'YTN·볼빅 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다승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창설대회에 유독 강한 면을 보이는 그를 만나보았다.

글 _ 김현주
사진 _ 최성우

국가대표를 거쳐 2009년 프로에 입문한 그는 루키의 신분으로 기라성 같은 선배 프로들을 차례로 누르며 '2010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내 차세대 스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장타자인 그는 여자 선수로는 드물게 2,3번 아이언도 능숙하게 다루며 아마추어 시절부터 유달리 역전 우승이 많았다.

2012년 11월, 'BS금융그룹 부산은행·서울경제 여자오픈'에서 프로통산 2승을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그는 지난해 손목과 허리 부상으로 인해 우승 없이 한 해를 보냈다. 와신상담으로 한해를 보냈지만, 올 초 시즌이 시작되자 극심한 부진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국내 개막전인 '제7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을 비롯해 두 번째 대회와 세 번째 대회에서 연거푸 컷탈락의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틀렸다.

그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회는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인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부터였다. 4위라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기록한 그는 이후 '한화금융 클래식 2014'에서 2위의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제1회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기어코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통

산 3승을 챙겼다. 그로부터 1달 후, 또다시 창설대회인 'YTN·볼빅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시즌 2승을 기록하며 다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시즌 초반의 부진에 대해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샷을 교정하는 과정이었다 하던데?”

“아니다. 골프선수는 프로에 입문해서부터 투어프로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쉽 없이 샷을 교정한다. 나 역시 지금도 원하는 구질을 완성하기 위해 샷을 교정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랬었다. 나보다 남들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쿨 하다. 어떤 이유나 변명도 없다. 경기 소감을 묻는 질문에서도 그런 성격이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시즌 첫 승을 올린 '제1회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의 마지막 날 18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실패해 연장전을 치렀다. 소심한 성격은 아닌가?”

“아니다. 그날은 첫 홀부터 퍼터가 달혀 맞았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플레이 중에는 바꾸려 하지 않았다. 고치려고 퍼터를 열어 스트로크를 하다보면 플레이 감각이 떨어져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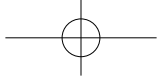
그리고 18홀의 마지막 퍼트는 TV 화면에서 보면 짧은 거리로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1미터 가량의 내리막 라이였다. 매우 까다로운 퍼트였고 역시 퍼터가 달혀 맞아 실패했을 뿐이다.”

“마지막 홀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퍼트였다. 퍼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융통성이 없다는 게 최대의 약점이다.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스스로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골프의 기술에 관해서는 더욱 원칙을 따진다. 그러다보니 스스로 힘들다. 지금은 내려놓으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연습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 그는 대신 뛰어난 지략가다. 하지만 전략은 매우 간단하다.

매 홀마다 복잡한 공략작전을 짜기보다는 크고 수월한 목표 하나만을 정한다.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YTN·볼빅 여자오픈'에서의 우승은 바로 전략의 성공이었다.



전날 2라운드를 10언더파 공동 선두로 마친 이정민은 최종라운드에서 승부를 걸어야하는 홀에서는 승부수를 띄워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승부홀로는 자신의 장기인 장타를 앞세울 수 있는 파5홀을 꼽았다. 그 결과 4개의 파5홀에서 이글 1개와 버디 1개를 속아내며 기분 좋게 시즌 2승을 거머쥐었다.

“전략은 우승을 위한 밑그림이고 세운 전략을 공략하는 것도 골프의 묘미다. 올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비결도 이처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이 생긴 덕이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저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끊임없는 스윙 교정을 하고 있다. 남들은 장타자인 그의 스윙을 보며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스윙이라 평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도 불만이 많다. 원하는 만큼 완벽한 페이드 샷 구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굳이 페이드 샷을 고집하나?”

“내 스윙 스타일에는 페이드 샷이 가장 적합하다. 몸에 무리도 없고 거리와 방향에도 가장 좋은 영향을 준다. 원하는 샷 구질이 완성돼 일관성만 유지된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성숙한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다. 그게 언제쯤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빠른 생일 덕에 남보다 1년 먼저 학교에 들어간 탓인지 어린 시절엔 또래보다 유달리 체격이 작았다. 그러나 단거리 육상 선수로 활동을 했을 만큼 운동 신경만큼은 남달랐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골프를 처음 배우고, 그로부터 5개월 뒤 재미삼아 출전했던 첫 대회(제주도지사배)에서 첫 날 80타를 치며 5위로 예선을 통과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유독 작은 키로 자기만한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는 당찬 어린애의 모습이 그저 신기하게만 보였다. 중학교 1학년 때의 신장이 144cm였더니 초등학교 시절의 모습은 보지 않아도 쉽게 상상이 된다. “구기 종목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공을 갖고 하는 놀이에 푹 빠져있었다. 그중에서도 골프는 내가 하는 공놀이 중에서 가장 멀리 공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었다. 워낙 키가 작다보니 축구를 해도 공이 멀리 가지 못했고, 야구를 해도 멀리 던지지 못했다. 그러니 골프는 달랐다. 내 생각보다 멀리 날아 가는 공을 보며 골프를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중학교 2학년 때 부터 키가 10cm 이상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다. 자라나는 키만큼 골프실력도 커졌다. 한국주니어대회에서 첫승을 차지한데 이어 호심배(2006년), 익성배(2007년), 송암배(2008년) 등 유독 큰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8년 태극마크를 달고 미국에서 열린 ‘폴로주니어를

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에이스의 역할도 확실하게 해냈다. 이 대회는 미국 주니어 랭킹 70위 이내 선수들이 참가하는 메이저 대회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에서 아마추어 무대를 평정한 그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한 KLPGA투어에서도 9번 출전하여 5번이나 톱텐에 들었을 정도로 출중한 골프기량을 갖고 있다.

올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메트라이프 · 한국경제 제36회 KLPGA 챔피언십’에서 3위의 성적을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그에게 넌지시 해외진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올해 대학원에 입학해 스포츠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다. 공부하랴 운동하랴 다른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다. 해외투어는 우선 대학원 공부를 모두 마친 후에 검토하겠다.”

“전공과목이 향후 미래의 계획과 관련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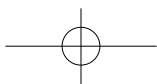
“아니다.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시도일 뿐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장차 진로를 결정하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성격 탓에 남을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투어에 입문한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옛된 외모는 이제 방금 프로에 입문한 새내기만큼이나 싱그럽고 상큼하다. 프로통산 4승의 소유자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몸매도 가냘프고 수줍음도 많다. 인터뷰 중에도 그를 알아본 몇몇 팬이 모자를 새로 구입해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쑥쑥 어색한 표정으로 사인을 마친다. 아직도 남들 앞에 나서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못해봤던 것들을 해보며 다양한 경험을 쌓기로 한 것!

우선 시즌이 끝나면 짧은 휴식기를 이용해 스페인 여행을 계획했다.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도 만나보고 새로운 문화도 접하며 생각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좁고 깊은 시야보다는 넓고 다양함을 담은 여유로운 시선으로 골프를 바라봤을 때, 선수의 생명력도 오래갈 수 있음을 이제야 터득했다.

“남은 경기에서의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 부상 없이 즐긴다면 기회는 올 것이다. 차분하게 골프뿐만 아니라 인생의 부족함까지도 채워나가겠다.”



두 개의 심장으로

뛰는 맥박!

박지영이
'KLPGA2014 Kangsan · 카이도골프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13차전'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7차전'에서
첫 우승을 거둔 그는
시즌 2승을 기록하며
내년도 정규무대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섰다.

글 _ 김현주 사진 _ 최성우



어린 시절은 유별났다. 무남독녀 외동딸인 그는, 일찌감치 엄마가 입혀주는 치마를 거부하고 예쁜 인형보다는 장난감 총을 갖고 놀기 좋아하는 유별난 여자아이였다. 거기에 축구, 농구, 야구는 기본이고 태권도, 합기도, 검도까지 운동이란 운동은 모조리 섭렵할 정도로 타고난 운동신경을 지녔다.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해서 장차 하버드대학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영리했다. 운명은 우연으로 찾아와 그에게 골프채를 쥐어주었다. 공을 갖고 노는 운동이라면 어떤 종목이라도 자신 있던 그에게 골프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방과 후 수업으로 처음 골프를 접했다. 내가 휘두른 만큼 공이 날아가는 것이 처음엔 신기했다. 작은 공을 내 신체가 아닌 클럽을 사용해 똑바로, 멀리 보낸다는 게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매력적이었다. 6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레슨을 받으며 골프선수의 꿈을 키웠다.”

타고난 운동신경과 영특한 머리로 중학교 2학년 때 국가상비군에 발탁되는 행운을 잡았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린나이에 경험하는 경쟁에 대한 압박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을 짓눌렀다. 급기야 골프대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며 점점 골프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그토록 매력적이고 재미있던 골프가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며 하루빨리 국가상비군이란 타이틀을 떼어내고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싶었다.

“너무 어린나이에 분에 넘치는 큰 선물을 받다보니 미처 그것을 받아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됐었다. 선수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짐이었다. 대회 일정이 잡히면 그때부터 무서운 공포에 시달렸다. 처음으로 골프를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들었고 급기야는 골프가 무서워졌다. 하루빨리 골프에서 벗어나 경쟁에서 자유롭게 싶었다. 다른 친구들처럼 수다도 떨고, 학교수업이 파하면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싶었다.”

결국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진한 성적은 그를 국가상비군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하지만 골프를 벗어나면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공부는 공부대로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고 운동만



했던 그가 그 경쟁의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다시 골프채를 잡았다. 현실을 피할 수 없다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무기삼아 맞서기로 했다. 그리고 2년 후, 국가상비군으로 다시 발탁되는 기쁨이 찾아왔다. 비록 남들처럼 화려한 우승의 기록은 없었지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낸 덕에 두 번째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다.

“일찌감치 예방주사를 맞은 덕에 두 번째 국가상비군 생활은 잘 할 수 있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를 떠올리며 참아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운동선수는 기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상대선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다.”

올 5월에 프로에 입문한 그는 7월에 열린 'KLPGA 2014 카이도골프 · 그랜드CC 드림투어 Presented by 현대증권 7차전'에서 첫 우승을 맛봤다. 더구나 대회 1라운드에서는 10언더파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무서운 신인의 탄생을 예고했다. 그 후 1개월 만에 또다시 역전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시즌 2승의 기록으로 내년도 정규무대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선 그는 이처럼 빼어난 기량과 강한 멘탈의 소유자다. 흔히들 몰아치기에 능하고 역전승을 잘 하는 선수를 강심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한 개의 심장을 더 갖고 있다. 바로 불우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심장이다.

어릴 적 우연히 본 TV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불쌍한 모습을 목격한 그는 어른이 되면 꼭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리라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자신의 용돈을 모아 매달 유니세프에 전달하는 선행을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비록 큰 금액의 성금은 아니지만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매달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사소한 금액의 약속이라면 더더욱 지켜내기가 어렵다.

“없어도 큰 불편함이 없는 적은 성금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때부터 용돈을 모아서 매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적은 액수의 금액이지만 장래의 꿈은 스스로 재단을 만들어 그들을 후원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우선 내가 유명 골프선수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돼서 내 이름을 건 재단을 만들어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데 인생을 걸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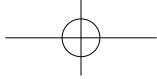
지금껏 받은 우승상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미래의 재단기금을 위해 적립하고 있다는 그는 짧은 각오 몇 마디에 인생 전체를 담았다. 거기에는 치열한 경쟁의 경계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의 흔들림도 없었다. 삶의 목표를 향한 운동선수의 강인함과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10대 소녀의 순수함만이 두 개의 심장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드림투어에서 정규투어 발판을 마련하기위해 고군분투하고있는 그는 골프의 꿈이 익어갈수록 인생의 꿈도 완성됨을 잘 알기에 지금의 수고가 힘들지 않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그가 떠난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며 혼자서 물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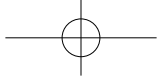
SPECIAL

스페셜 | 골프와 기부문화



기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 쓰여있다.
기부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기부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벤트가 아닌 '기부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다.

글 _ 김현주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열풍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얼음 물을 뒤집어 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미국 루게릭협회(ALS)가 루게릭 환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자선활동 캠페인이다. 당초 취지는 차가운 얼음물이 피부에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고통을 잠시나마 경험해보자는 것이었다. 룰에 따라 지명된 사람은 24시간 내 얼음물을 맞을지, 100달러를 기부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얼음물 샤워를 한 사람은 3명을 지목할 수 있다. 이 행사는 일종의 상황극을 연출하는 등 각자 개성에 맞춰 캠페인에 동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강제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같은 사례로 꼽힌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 등으로부터 아이스버킷 챌린지 대상으로 지목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도전을 거부했다. 대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는 캠페인에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는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한 동안 그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섣뚱 다가서기 힘든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골프에 부는 사회공헌활동 바람

최근 골프대회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선기금 이벤트와 지역사회 발전,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장하나와 함께하는 '2013 KLPGA 유소년 골프 꿈나무 클리닉'

한국 골프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수많은 우승자를 배출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과거에는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로 여겨지면서 골프와 연결된 사회공헌활동조차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스크린골프와 지속적인 골프 인기 상승으로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생겨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골프대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자선 기부금 전달이다. 굳이 '채리티'라는 대회 명칭을 달지 않은 골프대회라 할지라도 각종 이벤트를 통해 성금을 마련하여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이 통과의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성금으로도 쓰이지만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골프와 연결된 부분을 찾아 보니 재능은 있지만 골프를 하기에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 있는 학생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계속해서 골프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다. 나아가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나눔 활동도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프로선수들의 재능기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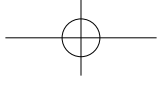
열매 맺는 KLPGA 재능기부 프로그램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이 열렸던 하이원 CC 진입로에는 '강원도의 딸 장하나, 챔피언은 하나'라고 적힌 현수막이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찾은 갤러리는 대부분 장하나의 경기모습을 보기위해 코스를 따라다니며 그의 샷 하나하나에 탄성과 탄식을 반복했다.

하지만 장나는 서울 출신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굳이 강원도와 인연을 꼽자면 아버지의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 정도다. 그런데 왜 장하나를 향한 강원도 정신의 환대는 이처럼 상상 이상이었을까? 이유는 바로 KLPGA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KLPGA 재능기부 프로그램 'Do Dream With KLPGA Golf Camp 2013'
김혜윤, 양수진, 장하나, 전인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골프 꿈나무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KLPGA는 2009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KLPGA 유소년 꿈나무 골프 클리닉'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넉넉지 못한 가정환경에서도 골프에 대한 꿈을 잃지 않게끔 꿈나무를 키워내며 KLPGA의 대표적인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장하나는 바로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골 오지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갈래초등학교와 첫 인연을 맺었다. 도시 어린이들과 달리 골프에 대한 혜택을 누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곳에서 그는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는 재능기부뿐 아니라 매년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고 어린 선수들의 멘토가 돼 주기로 약속했다. 그의 이런 결정은 폐광촌 골프 꿈나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크나 큰 선물이었으며 그를 보답하기 위해 때마침 열리는 '2014 채리티 하이원 오픈'에 현수막을 걸며 대대적인 성원을 보낸 것이다. 이런 꿈나무들의 성원에 힘입어 장하나는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그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됐다.

골프선수가 전하는 또 다른 감동

스포츠는 승리를 향해 겨루는 박진감 넘치는 경쟁과 승부가 주는 짜릿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다보니 가끔은 경쟁에만 몰두하여 불쌍사나운 장면이 연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골프대회의 사회공헌활동과 자선 기부행사는 타 종목의 스포츠 경기가 주는 것과는 다른 감동을 만들어낸다. 바로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나눔의 기쁨이라는, 스포츠와는 다른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최근 'Nefs Masterpiece 2014'에 출전했던 박희영은 오랜만에 출전한 국내 대회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기부했다. 우승을 한 것도 아니고,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또한 그는 지난해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에서 유소년 골프 꿈나무를 위해 5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고, 올해는 5백만 원 상당의 시상품을 제공했다.

최나연은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고액기부자 클럽이자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이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골프라는 특정 분야를 떠나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성격이 강한 '행복나눔 자선행사'를 통해 금전적인 후원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까지 빠지지 않고 참가해 기부천사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최초의 프로골퍼 회원이자 최연소 여성회원으로 기록된 그는 "사랑받는 그 이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되돌려 드리고 싶다. 나눔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희망과 행복을 느끼게 되길 바란다. 앞으로 꾸준한 나눔 실천에 앞장 설 것을 약속 한다"고 덧붙였다.

최나연의 자선활동을 보면서 기부 문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김지희도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던 그는 프로무대에 들어와서도 상금의 일부를 꼬박꼬박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능력이 되는 한 평생 기부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는 아직 프로무대에서 우승이 없지만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에서 우승하면 상금의 50%를 기부하겠다는 통 큰 약속도 했었다.

이외에도 상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여자프로골프

선수는 상당히 많다. 그들은 액수에 상관없이 상금액의 10%정도를 적립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선행을 실천하며 골프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선수 개인의 사회공헌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성이 가장 요구된다. 스포츠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히 관심을 끌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면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전반적인 골프업계에서도 더욱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선수, 기업이 함께하는 KLPGA 자선 골프대회

KLPGA는 1990년부터 24년간 매년 1회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얻어진 수익금을 어린이 재단, 양로원, 화상재단, 한국필벽재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대 어린이 병원 등에 기부활동을 계속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휘닉스 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삼천리그룹과 함께 '2014 KLPGA 삼천리그룹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자선골프대회'가 개최됐다. 공동주최사인 삼천리그룹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지난해부터 KLPGA와 함께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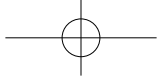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국내를 대표하는 40명의 KLPGA 정상급 프로들과 120명의 아마추어가 참가했다. 특히, 이날은 뜻깊은 기부 행사가 진행됐다. KLPGA 참가 프로 중 희망자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아마추어와 동반 라운드를 할 수 있는 동반 라운드권을 기부할 수 있으며, 동반 라운드권 경매를 통해 자선기금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참가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골프백과 사인 볼 케이스로 경매를 진행했다. 경매 수익금에 대회 자선기금 5천만 원, 선수들이 모은 후원금 1천만 원 등 총 1억 원가량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전달됐다.

실천하는 마음이 아름답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나 '배품의 미학'을 입으로 말하기는 쉬워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그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누구를 나무랄 일만도 아니다. 우리사회가 가난에서 탈출한 것이 불과 수 십 년 전의 일로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전쟁 등 많은 역사적 격동을 겪은 탓인지 아직 혈연위주의 사고방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점에서 거액을 선뜻 사회에 내놓은 기부자들의 결단은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기부문화라고 하면 흔히 미국의 록펠러나 카네기재단, 최근에는 빌 게이츠가 만든 200억달러 재단을 머리에 떠올리며 외국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도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큰 미덕으로 생각해 왔다. 조선 후기 전국 최고 부자로 유명했던 경주의 최 부잣집은 대대로 '사방100리 안에 밥 굶은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천했다고 한다. 또 밥을 짓는 저녁 시간,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 집을 찾아내 은밀하게 쌀을 보내 끼니를 잇게 하는 부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전한다.

넘치고 남아야만 이웃을 돕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도 '네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고 가르치고 있다. 바람직한 기부문화는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액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천하는 작은 마음이 그래서 아름답다.



01

01
삼천리 한준호 회장과 KLPGA 구자용 회장이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에게 난치병어린이돕기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02
선수대표 최혜정, 임지나, 홍란이 참석해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03
자선기금 경매에 쓰일 사인볼을 들고있는 김효주, 전인지, 장하나

04
자선기금 경매에 쓰일 골프백에 사인을 하는 장하나

05
KLPGA E1 채리티 오픈 후원금 및 패딩점퍼를 하희의 집(아동보육시설)에 전달하기도 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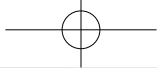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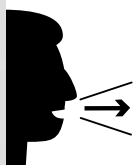
05



MENTOR & MENTEE

멘토-멘티 | 하나되는 KLPGA 멘토링 모집

나의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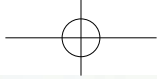


KLPGA에서는 지난 5월부터 기존 회원들을 멘토로 모집해 '멤버들의 멘토(Mentor the members)'라는 이름으로 KLPGA 회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회원들에게는 프로입문과 적응을 돕고, 기존 회원들과는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종의 재능기부의 형태로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고, 많은 회원들로부터 체계적인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맞춰 KLPGA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공사례를 분석, 도입하여 '멤버들의 멘토(Mentor the members)'의 2라운드를 준비했다.

그녀의 멘티



성공적인 멘토링사례로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는 여성특화멘토링프로그램을 구축, 멘토링 코디네이터를 육성해 체계적인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코디네이터의 전문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 체제 아래 멘토와 멘티를 모집하여 매칭을 하고, 멘토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멘토 위촉장을 받고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는 책임감 부여와 동시에 멘토라는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어 자기충전을 위한 활력소로 작용한다. 또한 멘토링 활동 계획서를 통해 목적에 따라 세 가지 부분의 멘토 전문분야 및 장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멘티가 원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멘토링 보고서 작성 시 멘토와 멘티가 같이 작성하여 발전부분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보고서를 인터넷에 작성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다른 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 커뮤니티를 기본적으로 포함해 성공적인 멘토링을 진행했으며, 멘토링 후 최종보고를 통해 우수 멘토와 멘티에게 포상을 하였다. 포상제도를 통해 멘토링 참여자의 의욕을 고취 시켰다. (참고자료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멘토링코디네이터가이드북)

위의 사례를 토대로 벤치마킹하여 KLPGA 멘토링을 중앙컨트롤 시스템으로 대폭 수정하였다. 기존 회원이 먼저 멘토 신청을 하면 멘토의 명단이 홈페이지(www.klpga.co.kr) 멤버스존에 게시되고 관심 있는 회원이 멘토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다. 멘토 정보만 게시하여 진행되던 방식에서 멘토, 멘티 모두 멘토링 신청서 및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멘토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 데이터가 될 것이다. 멘토링 실시 전에 협약서를 작성한다. 멘토-멘티의 기본정보 및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개인성향조사를 합하여 멘토-멘티를 배치하고, 기간은 3개월로 매주 1회 멘토링 시간을 1시간 이상 갖는 것이 원칙이다.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게 된다. 멘토링 일시, 상담내용을 포함해서

① 멘토 신청서 → ② 활동계획서 → ③ 멘토위촉장 → ④ 멘토링 협약서

월 1회 이메일로 제출한다. 이는 멘토링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되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멘토링 종료 후, 멘토링 만족도 조사와 멘티 활동평가가 이어진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커뮤니티를 형성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간다. 교육담당자가 속해있는 밴드 모임을 통해서, 멘토링을 온라인에서도 이어간다. 멘토링 시작 전 협회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서 필수로 이수한 후 멘토링을 시작할 수 있다. 멘토들은 멘토의 자질, 멘토링 기법, 멘토링 효과에 대해 인지해 더욱 효과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멘토들은 그동안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멘토링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멘토, 멘티가 된 회원은 멘토 임명장과 멘토링 활동 증명서를 받게 되며, KLPGA 교육프로그램(세미나, 아카데미, 전화영어)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또한 우수 멘토, 멘티, 커뮤니티는 상장 및 기념품을 받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멘토링 이후의 관계지속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며 그후 효과 지속성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하고자 한다.

이번 'KLPGA 멘토링' 프로그램은 그동안 회원들 간 교류가 적었던 단점을 극복하고, 멘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의 실질적인 조언과 상담으로 도움을 받고, 멘토는 재능기부로 보람을 찾는 방향으로 거듭나, 멘토와 멘티 사이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회원-회원이 하나가 되는 KLPGA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멘토-멘티 현황

Mentor of the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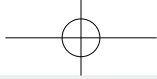
협회 회원들을 위해 아낌없는 재능 기부를 해주고 계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재능기부를 기다립니다

윤수정2 프로	회원구분	정회원	멘토일정		2014년 6월 1일 ~				
	지역명	용인 / 태광골프연습장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새벽						
			오전			8~16			8
			오후						~12
	E-mail	fly1621@naver.com	저녁						
	분야	골프골프레슨(골프스윙, 매너, 숏게임 등) /골프멘탈,심리상담 / 진로 및 학업 상담							
신청일자 5월 23일	자기소개	- 주니어 상비군5년 및 투어참가 / 주니어 & 프로티칭 중 / 석사과정 재학 중 - 심리치료연구소와 연계(멘탈세미나/집중훈련 프로그램등) 아카데미 진행 중 - 미즈노아카데미 파트너쉽퍼포먼스센터 이용으로 본인에게 맞는 클럽선택							

지용주 프로	회원구분	티칭회원	멘토일정		개인별 상황에 따른 필요기간 설정				
	지역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새벽						
			오전						
			오후			15~18	14~17		
	E-mail	judytank@hanmail.net	저녁						
	분야	골프멘탈,심리상담							
신청일자 5월 24일	자기소개	- 체육학 박사 / 스포츠 심리 상담사 / 골프 심리학 강의 및 선수들 심리상담							

박금숙 프로	회원구분	정회원	멘토일정		2014년 6월 1일 ~				
	지역명	충북 서울·경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새벽						
			오전						
			오후					○	
	E-mail	klpga044@naver.com	저녁						
	분야	골프골프레슨(골프스윙, 매너, 숏게임 등) / 골프멘탈,심리상담 골프지도법(지도안, 커뮤니케이션스킬, 회원관리, 운동처방 등) 진로 및 학업 상담							
신청일자 5월 26일	자기소개	- 중원대학교 교수 / 골프기술지도, 심리, 진로 및 취업							

박현순 프로	회원구분	정회원	멘토일정		2014년 6월 15일 ~				
	지역명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횡성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새벽						
			오전				○	○	
			오후				○	○	
	E-mail	birdie63@hanmail.net	저녁						
	분야	골프골프레슨(골프스윙, 매너, 숏게임 등) / 골프멘탈, 심리상담 골프지도법(지도안, 커뮤니케이션스킬, 회원관리, 운동처방 등) 진로 및 학업 상담							
신청일자 6월 9일	자기소개	- 한국골프대학교 교수 / 여자국가대표팀 코치							



멘토-멘티, 하나되는 KLPGA 멘토링 모집

협회에서는 신입회원의 프로입문 적응, 선후배와의 관계 형성, 재능기부(레슨/상담)등 인생선배로서 멘토 해주실 자원봉사자 및 멘토링이 필요한 멘티를 모집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명칭 : 멘토-멘티, 하나되는 KLPGA 멘토링 모집

2. 목적 : 가. 선후배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보다 빠른 적응 유도
나. 선배회원의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조언으로 만족도 증대
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통한 희망과 꿈의 실현

3. 내용 : 가. 멘토 : 경험이 풍부한 선배가 후배의 멘토로서 조언, 상담자 역할
나. 멘티 : 상담, 조언자가 필요한 회원
다. 분야 - 골프레슨(골프스윙, 매너, 샷게임 등)

- 골프멘탈, 심리 상담
- 골프지도법(지도안, 커뮤니케이션스킬, 회원관리, 운동처방 등)
- 진로 및 학업 상담
- 골프경영 / 개인사업

4. 운영방법 : 가. 모집 : 멘토/멘티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접수 후 멘토/멘티 협약(협회관리)

※ 지인, 학생(제자), 개인회원 등 관련자 제외

나. 기간 : 3개월, 매주 1회 멘토미팅(1시간 이상)

다. 운영 : 1) 보고서제출 : 월 1회 제출

가) 멘토보고서 작성 : 멘토링 일시, 상담내용, 시간

나) 멘토링 만족도, 멘티활동평가

2) 커뮤니티형성 : 그룹, 모임 활성화(밴드-교육담당자 모니터링)

3) 교육 : 가) 기본교육 : 멘토의 자질, 멘토링 기법, 멘토링의 효과 등

나) 간담회 :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다) 세미나 : 1일 또는 1박 2일 프로그램 년 1회

4) 지원 : 가) 증명서류발급 : 멘토협약서, 멘토임명장, 멘토링 활동 증명서

나) 교육참여우대 : KLPGA 교육프로그램(세미나, 아카데미, 전화영어 등) 우선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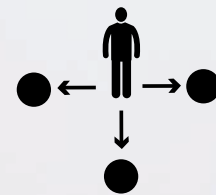
다) 포상 : 우수멘토·멘티, 커뮤니티 포상(상장 및 기념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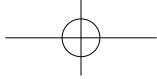
5) 사후관리 : 멘토링 후 관계지속 여부, 멘토링 효과 지속성 파악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manjjoo@klpga.org, fax : 02-539-6003)

6. 문의 : 업무지원팀 김민주 대리 (02-560-4426)





ISSUE

이슈 | 레저세 반대 스포츠 단체장 공동성명서



Leisure tax

스포츠 단체가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부과에 대한 프로스포츠 단체장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프로스포츠 단체가 지원받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의 30%(당첨자 환급금, 운영비 및 수수료 제외)에서 10%의 레저세가 부과되면 지방교육세 4%와 농어촌특별세 2%의 추가 부과로 총 16%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육기금 수입이 약 50% 이상 대폭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해오던 모든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KLPGA에서는 국민체육진흥 기금으로 '회장배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유소년 골프클리닉을 통해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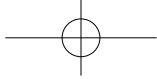
KLPGA 뿐만 아니라 프로축구에서는 겨울훈련장과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고 유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야구는 지원 기금의 70% 이상을 초·중·고교 야구부와 리틀야구단 창단, 각종 유소년대회 개최와 유소년 야구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골프의 경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 골프가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골프 대중화 및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나 레저세 부과로 유소년 육성기반이 약화되면서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기력 저하로 인해 국가 위상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KLPGA를 비롯한 8개 단체가 프로스포츠 단체장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부과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5월 23일 이후 각 단체에서는 레저세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레저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장 공동성명서



야구위원회, 축구협회 · 프로축구연맹, 농구연맹, 여자농구연맹, 배구연맹, 프로골프협회 및 여자프로골프협회 등
우리 프로스포츠단체는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부과에 대하여 반대의를 표명한다.

반대 이유는

첫 번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함이고,
두 번째, 레저세 부과 시 체육분야에서 조성된 투표권수익금이 체육진흥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며,
세 번째, 레저세 징수금액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산으로 전환되어 불특정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체육진흥의 본질 및 공공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가 부과되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해오던 모든 사업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를 발굴 · 육성하는 유소년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한 주최단체지원금은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의 유소년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당종목의 스포츠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투표권 수익창출이라는
선순환적 구조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프로축구의 경우, 유소년들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겨울훈련장과 인조잔디 구장 등을 조성하고
유소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활동은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 덕분이다.
또한, 프로야구는 지원받은 기금의 70% 이상을 초 · 중 · 고교 야구부와 리틀야구단 창단 및 각종 유소년대회 개최 등의
유소년야구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야구장인프라 개선과 다양한 저변확대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프로농구도 유소년 농구 유망주 발굴을 위한 꿈나무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배구나 골프도 다른 종목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원금 덕에 과거에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꿈나무 육성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체육에 쓰는 돈은 국가총예산의 0.05% 안팎이며, 독일, 영국 등 유럽선진국의 1%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가위상을 드높이며 많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우리 체육의 백년대계와
국민스포츠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라나는 꿈나무 체육영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석상대”식의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신설 법안 상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축구협회(KFA), 한국프로축구연맹(K-League),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6A)



SPONSOR

스폰서 | Always First! – YTN

뉴스가
있는
현장에는

●● YTN 이 있다



01

YTN은 지난 1995년 3월 1일, 케이블TV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채널로 탄생했다. 당시만 해도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뉴스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YTN의 탄생으로 시청자들은 뉴스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국내외 뉴스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CNN'을 표방한 YTN은 20여 년이 지나도록 단 1초도 뉴스를 중단해 본 적이 없다. 이젠 YTN이 한국의 24시간 뉴스 전문채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뉴스의 생명력은 신속과 정확이다. 이를 위해 YTN은 뉴스 현장에 중계차를 급파해 생방송을 크게 강화하고, 대형사고 발생 때는 과감히 정규 편성을 깨고 특보체제로 전환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거듭하며 한국의 뉴스를 선도해왔다.

특히 YTN 창사 첫 해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지하철 폭발 사고, 9·11테러, 이라크전쟁 등 국내외 굵직한 사건·사고를 보도하면서 YTN의 위상을 높였다.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하겠다는 YTN의 전통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때의 안보적 위기 상황은 물론 올해 4월 수하여행중인 3백여 명의 안산 단원과 학생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태와 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사고 등을 다른 언론사보다도 빠르게 전달하며 신속한 보도의 대명사로 거듭 났다. 이 같은 YTN의 현장을 중시하는 전략은 YTN을 '한국의 CNN'으로 시청자에게 각인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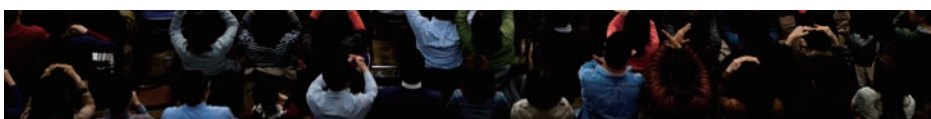
YTN, 가장 공정한 미디어 7년 연속 수상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외에도 YTN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 24시간 방송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CNN의 편성과 보도방식을 도입한 YTN은 무엇보다 '공정한 뉴스'를 제1의 가치로 삼고 있다. 따라서 YTN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뉴스전문채널의 사명감과 투철한 보도 정신, 공정한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YTN이 제공하는 뉴스·정보가 다양한 집단의 가치와 견해를 반영하고, 균형성과 객관성, 특정 이슈와 이해 당사자에 대한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대다수 언론학자들로부터 받고 있다.

미디어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지난해 12월 한국언론학회 전회원(5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밝혔다.

YTN은 종합뉴스를 제공하는 3개 지상파 방송과 2개의 보도전문채널, 4개의 종편 방송사, 신문구독자 점유율 상위 6개 종합일간지, 방문자수 기준 상위 2개 종합인터넷신문 등 총 17개 미디어 가운데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 제공하는 뉴스 및 정보가 건전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이고, 믿을만하지, 상반된 보도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참고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신뢰성 부문에서도 한겨레신문을 제치고 1위에 선정되는 등 처음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다양하고 흥미 있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지, 뉴스 및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는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콘텐츠를 다루는지를 평가하는 유용성 부문'



에서도 SBS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창사 20여 년 이제 성년을 맞이한 YTN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유수 언론사로서의 높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미래연구소의 김국진 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보다 공정하면서도 또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CI 바꾸고, 상암동 시대 개막!

2014년 4월 7일, 창사 20년 만에 남대문 시대를 마감하고 상암동 DMC에 신사옥, ‘YTN뉴스퀘어’로 이전하며 상암동 시대의 막을 올린 YTN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글로벌 콘텐츠 리더’가 될 것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YTN은 ‘Exclusive Tomorrow’라는 비전 슬로건 아래 “시청자와 함께 내일을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을 전할 것”을 시청자들에게 굳게 약속했다. YTN은 세계 뉴스 현장을 동시에 연결하고 세계 언론

의 시각을 체험하고, 세계를 보는 눈을 넓혀 드린다. 워싱턴과 뉴욕, LA, 런던, 도쿄, 베이징 등 세계 6개 지역에 파견된 특파원은 물론 6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YTN통신원들은 시사각각 세계의 소식을 고국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위성방송을 통해 재외동포는 물론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한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된 YTN의 글로벌 전략은 세 개의 위성을 이용해 전세계를 방송 권역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73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는 물론 해외 공관에도 YTN 뉴스가 방송되면서 고국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YTN이 기간방송사다”라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Always



YTN, ‘독일 레드닷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수상

YTN은 상암동 이전과 함께 그동안 사용해 오던 로고도 새롭게 바꾸었다. YTN 브랜드의 정수는 정보의 신뢰성과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정보의 홍수시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REAL SMART YTN’이다. 이 브랜드 에센스는 NO.1 뉴스채널이라는 기존의 브랜드 자산위에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며, 직관적이며 소통을 중시하는 이미지 등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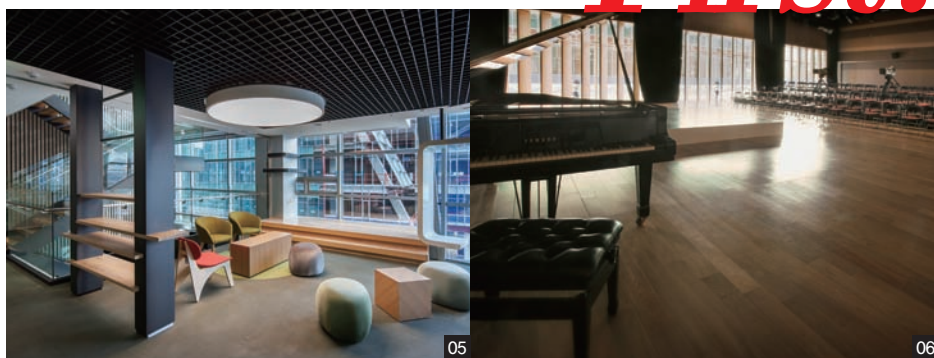
YTN의 신로고에 쓰여진 별렬로 이어진 두 개의 정원은 현장과 YTN의 만남, YTN과 사람들간의 만남과 나눔을 통해 정보 전달을 넘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 만들어가는 YTN을 상징하며, 정적인 디자인을 넘어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YTN의 모습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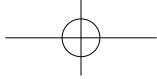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초의 24시간 뉴스전문채널, YTN은 보다 생동감있는 뉴스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언론을 넘어 지식정보 미디어그룹으로 제2의 도약을 하고자 한다.

YTN NEWSQUARE

- 01 미디어파사드 외부전경
- 02 · 06 YTN홀
- 03 체험스튜디오
- 04 스튜디오 전경
- 05 3층 휴게실
- 07 미술장식품 _ 배롱나무

First!





BEST PHOTO

베스트 포토 | Nefs Masterpiece 2014, MBN여자오픈 with ONOFF,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KLPGA 공식 사진기자인 박준석 사진기자가
직접 고른 베스트 포토입니다.

사진 _ KLPGA 공식사진기자 박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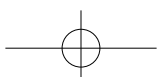
고진영 | Nefs Masterpiece 2014
광복절을 맞아 페이스페인팅한 고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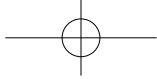


박주영 | Nefs Masterpiece 2014
15번홀 티샷.



이정민 | Nefs Masterpiece 2014
18번홀에서 예술작품 배경으로
칩샷을 하고있는 이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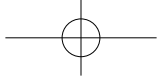


Nefs Masterpiece 2014
15번홀 여승각품 위로 선수들이 이동하고 있다.

조윤지 | Nefs Masterpiece 2014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페이스페인팅후
포즈 취하는 조윤지.

MBN여자오픈 with ONOFF
18번홀 그린에 몰려든 갤러리.





▶ 김하늘, 고진영 | MBN여자오픈 with ONOFF
경기가 취소되자 김하늘과 고진영이
연습그린에서 슬라이딩 세리모니를 하고있다.



▶ 김하늘 | MBN여자오픈 with ONOFF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한 김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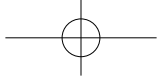


▶ 김현수 | MBN여자오픈 with ONOFF
16번홀 버디 성공후 밝게 웃고있는 김현수.



▶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선수들이 16번홀 워터헤저드를 지나
그린으로 향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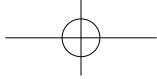
▲
장하나 |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우승확정후 기뻐하는 장하나.

▲▲
김하늘, 이승현 |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이국적인 배경의 13번홀 페어웨이로 향해
이동하고 있는 이승현과 김하늘.



▲
장하나 |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7번홀로 이동하는 가운데 V자룩 그려보고있다.

▲
장하나 | 2014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
자신이 멘토 역할을 한 갈래초등학교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행동대장 조윤희,

세상을 향해 날개짓 하다

회원번호 281번 조윤희.
현역 시절엔 선수협의회를 만들어
선수의 입장을 대변하던 그가
은퇴 후에는 협회의 이사직을 맡으며
협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선수와 협회의 가교역할을 하며
거기에 자신의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열성 커리어우먼 조윤희를 만나보자.

글 _ 김현주
사진 _ 최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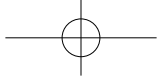
2011년을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정들었던 투어무대를 떠났다. 구옥희 프로나 박세리 프로처럼 프로골퍼의 레전드가 되지 못할 바에는 제2의 골프인생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어릴 적 일찌감치 미국유학 생활을 하여 얻은 자립심과 타고난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합하다보니 판단은 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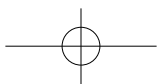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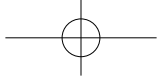
1년을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사업구상을 하던 그에게 뜻하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모 기업체의 오너다. 회사에서 여자프로골프선수를 지원하고 싶으니 마땅한 선수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때마침 후배 프로골프선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스폰서 계약이 끝나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야하니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다.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의 일치다. 서로를 소개해주며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물러서는 순간, 새로운 오더가 내려졌다. 선수 후원을 처음 해보는 기업이다 보니 기왕이면 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와 선수관리를 책임져 달라는 부탁이다. 부랴부랴 회사를 만들고 계약에 관한 업무대행을 시작했다. 큐 코퍼레이션은 이렇게 설립됐고 그때부터 그는 프로선수가 아닌 프로선수의 매니저가 됐다.

“매니지먼트사의 첫 번째 임무는 소속선수의 스폰서를 구하는 일이다. 매니지먼트사가 소속선수에게 스폰서를 구해올 테니 기다리라 해놓고 계약이 안 돼, 시즌 내내 선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나는 절대로 선수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말자고 다짐을 하다 보니 선수영입 보다는 스폰서 영입이 우선 과제가 됐다. 달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논제와 같은 경우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사업은 우선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다.”

매니지먼트 사업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하고 싶었던 일과 사업은 엄연히 달랐다. 사업은 꾸준히 수익을 내야만 한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사업은 수익성이 거의 없다.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작한 그로서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필요했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거리를 떠올려 봤다. 생각은 단 하나. 바로 프로암 대회였다.

투어선수 시절 누구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프로암 대회를 참가했다. 당시 프로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일부는 의무적인 사명감으로 힘들어 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그들이 언젠가는 나







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관심이 많이 갔다. 그러다보니 잘 모르는 분야의 사업을 하는 고객과 동반 라운드를 할라치면 물어볼 질문도 많았다.

고객이 프로에게 골프에 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프로가 고객의 사업분야에 관한 질문이 더 많다보니 비즈니스 마인드가 뛰어나다며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심지어 프로생활을 청산하면 자신들의 회사에 와서 새로운 일을 함께 구상해보자는 제의까지 했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그들을 찾아 나섰다. VIP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프로암 대회를 제안했다. 원하는 프로선수와 함께 라운드도 하고, 기업의 PR 효과도 높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니겠냐며 클라이언트를 설득했다. 선수시절부터 그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인정해온 클라이언트들은 제안을 승낙했다. 기업체 VIP 고객을 위한 소규모 프로암 대회는 이렇게 시작돼 큐 코퍼레이션의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소규모의 프로암 대회는 초청된 고객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이 돌아왔다. 소외감 없이 귀한 손님으로 초청 받았다는 자부심과 함께, 제대로 된 접대를 받았다는 만족감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거절할 수 없는 특별한 인맥관계를 통해 어렵사리 성사시킨 단발성의 이벤트가 기대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자 정기적인 이벤트로 활성화 시킨 기업체도 늘어났다. 아직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지만 창립 2년 차의 신설회사로서는 배울 게 더 많은 비즈니스 영역이다.

"프로암 대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편향된 시선이 안타깝다. 일부에서는 프로암 대회를 '은밀한 유혹'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 골프선수의 실력보다는 외모에 더 치중해 선수를 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프로암 대회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최대의 목표다.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는 참가한 고객의 만족도에 비례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다. 고객마다 개인의 취향은 모두 다르다. 골프라 잘 치는 선수를 선호하는 고객도 있고, 선수의 외모를 선호하는 고객도 있다. 개인의 취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연기 잘하는 배우를 좋아하는 팬이 있는가 하면, 연기는 좀 멀

어져도 외모가 출중한 배우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다. 그렇다고 외모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는 경우는 없다. 왜 유독 골프의 프로암 대회만 비틀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의아하다. 그리고 프로선수가 외모를 가꾸는 것은 프로가 갖춰야할 기본 덕목이다.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는 연출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다. 일부 극소수의 일탈행위를 전체로 싸잡아 매도해서는 안 된다."

처음 프로에 입문해 무명의 설움을 달래는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준 기업이 있다.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은퇴를 한 지금도 어버이날에는 정성껏 쓴 손 편지 한 장에 꽃한 송이, 그리고 약간의 주전부리를 장만해 기업체 대표를 찾아간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대한민국 재벌기업의 총수는 작은 선물에 크게 기뻐하며 반갑게 그를 맞아준다. 프로 입문 후 지금까지 매년 어버이날이면 어김없이 연출되는 훈훈한 장면이다.

"스폰서를 계약관계로만 바라보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부탁한다. 가족으로 대하라. 내가 아는 선배는 12년 동안 한 스폰서와 관계를 맺은 후, 지금은 은퇴를 하고서도 그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프로선수와 스폰서는 처음엔 금전적인 계약관계로 인연을 맺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만큼 소통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현역시절 선수들의 권익과 그들의 목소리를 협회에 전달하기 위해 앞장서서 선수분과위원회와 선수협의회를 만들었던 그가 은퇴 후 협회의 이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지금의 협회는 과거 선수협의회를 만들었던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선수들의 건의사항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불편한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선수들이 과거처럼 크게 불만을 표출할 일도 없다. 더 이상 선수와 협회의 간극을 좁히는 가교역할은 필요가 없다. 선수의 경험에 협회행정을 빨리 배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전력하겠다." 자리이동을 하고보니 상대의 입장에서 관점을 바라보는 사고의 유연성도 생겼다. 한쪽에서만 쏠렸던 좁았던 시야도 양쪽을 모두 폭넓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지금 한국여자프로골프는 눈부신 도약을 하고 있다. 훌륭한 선수들의 활약과 협회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스폰서들의 공로다. 그동안 모든 골프대회는 스폰서의 경비로 치러졌다. 그들의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 선수들 스스로가 스폰서를 초청하는 '사은 골프대회'를 1년에 한번쯤 개최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선수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 돼야 한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갖고 선수들과 소통하며 이 꿈을 이뤄보겠다."

행동대장 조윤희.

선수시절 동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칭이다. 그만큼 어떤 일을 하든 앞에서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저력이 있다. 선수생활을 청산한 그는 이제 더욱 바빠졌다. 자신의 사업도 일궈야 하고 협회와 선수간의 든든한 가교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맥이 자신의 총 재산이라 말할 만큼 대인관계를 중시 여기는 그이기에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상을 향한 날개짓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힘찬 비상을 기원한다.

☺ **솔병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골프

팔꿈치 손상의 재활 및 예방 운동법 ⁸

글 _ 나영무(솔병원 원장)

자료 제공 _ 솔병원(02-2064-7575, www.sol-hospital.co.kr)

01

손목 스트레칭

손과 손목주변의 근육 강화

- 방법 : 어드레스를 잡고 그림을
평소 스윙할 때 보다 세게 잡는다.
그 자세를 5초 정도
유지한 뒤, 힘을 빼고
다시 반복한다.
- 운동횟수 X 세트 : 5초 10회 X 3set
- ★ Point : 힘을 주면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꼭 클럽이 아니더라도
말랑한 공이나 플렉스 바를
이용해도 된다.



슬병원은 KLPGA 공식지정병원으로서 KLPGA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각 투어 별 전 대회)에 전담 의무팀(엠블런스 1대, 간호사 1명, 트레이너 1명)을 파견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대회 기간 동안 부상 예방 및 처치를 위한 기본적인 Medical Service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정규투어 메이저대회에는 전문의 1명과 의료장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한다.

02 손목 스트레칭

손목 신전근과
굴곡근 유연성 확보



- 방법 : 한 쪽 팔을 완전히 펴서 어깨높이까지 올린 후, 반대손으로 손바닥 (첫번째 그림)과 손등(두번째 그림)을 몸쪽으로 당겨준다.
- 운동횟수 X 세트 : 15~20초 X 2set
- ★ Point : 팔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03 손목 굴곡 & 신전운동

손목 굴곡근과
신전근 강화



- 방법 : ① 벤치에 한쪽 팔을 올려놓고 반대쪽 팔을 이용해 손목을 고정한다.
② 손에 덤벨을 쥐고, 팔을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 손바닥 굽힘동작과 손등 굽힘동작을 실시한다.
- 운동횟수 X 세트 : 15~20회 X 3set
- ★ Point : 손목의 힘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덤벨이 아니더라도 액서사이즈밴드나 플렉스 바를 이용해도 된다.

04 손목 편위 운동

아래팔과 손목주변의
근육 강화



- 방법 : ① 벤치에 한쪽 팔을 올려놓고 반대쪽 팔을 이용해 손목을 고정한다.
② 손에 플렉스 바를 쥐고, 팔을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 엄지손가락 방향,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힘을 주어 반복한다.
- 운동횟수 X 세트 : 5초 20회 X 3set
- ★ Point : 손목의 힘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플렉스 바가 아니더라도 액서사이즈밴드나 덤벨을 이용해도 된다.

05 덤벨 컬 운동

상완 이두근
강화운동



- 방법 : ① 벤치에 앉아서 양쪽 손에 덤벨을 쥔다.
② 팔의 힘만을 이용해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덤벨을 들어올린다.
- 운동횟수 X 세트 : 15~20회 X 3set
- ★ Point : 상체의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팔의 힘만을 이용해 실시하여야 한다.

06 덤벨 킥 백 운동

상완 삼두근
강화운동



- 방법 : ① 벤치에 같은쪽 손과 무릎을 대고, 한 쪽 다리는 바닥을 지탱해 준다.
② 반대손에 덤벨을 쥐고, 팔꿈치를 90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한다.
③ 위팔은 고정된 상태에서 아래팔만 뒤로 완전히 펴준다.
- 운동횟수 X 세트 : 5초 20회 X 3set
- ★ Point : 상체의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팔의 힘만을 이용해 실시하여야 하며 운동하는 팔은 완전히 펴주어야 운동효과가 있다.

07 팔 주변 마사지



- 방법 : 손가락이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수시로 마사지한다.
- 운동횟수 : 각 5~10분
- ★ Point : 운동 전 후로 실시해 주는 것이 좋다.



*Muse
Hyun-a*

토니모리 뮤즈
현아의
가을 메이크업
따라잡기

올 가을 메이크업 트렌드를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는
토니모리의 '키스러버 립 클릭'과 가을 신상 메이크업 아이템들로
매혹적이면서 러블리한 현아의 메이크업 룩을 완성해보자.

자료제공 _ 토니모리(080-356-2222, www.etonymoly.com)

- 01
아이톤 상글 섀도우 S06 겔스버건디
- 02
크리스탈 블러셔 17호 키스러버
- 03
비씨데이션 올마스터 SPF30 PA++
- 04
키스러버 립 클릭 M02 겔스버건디
- 05
퍼펙트 아이즈 워너비 듀오 라이너
01 겔스버건디-펄 블랙 & 겔스버건디

바야흐로 레드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가을 메이크업에는 맑고 강렬한 레드 컬러부터 고혹적인 버건디 컬러까지 다양한 레드 컬러가 강세를 보이는 데, 지난해 수많은 여성들의 입술과 손끝을 물들였던 버건디 컬러는 올해도 여전히 트렌드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크업 브랜드들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올해 가을 메이크업 트렌드는 '버건디'와 '코랄' 컬러가 중심이 된 포인트 메이크업이다.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토니모리에서는 새로운 뮤즈인 현아와 함께한 메이크업 화보를 통해 올 가을 트렌드를 완벽히 소화한 포인트 립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빨개요"로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마친 현아는 자신의 노래에 걸 맞는 레드 립 메이크업을 통해 매혹적이면서도 무겁지 않은 룩을 연출해 냈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이 선호하는 메이크업은 깨끗한 피부표현과 자연스러운血色이 도는 내추럴한 러블리 메이크업이다. 이러한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것은 촌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과하지 않은 포인트 메이크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추럴한 러블리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먼저 촉촉하면서 볼륨감 있는 페이스 라인 연출이 가능한 '비씨데이션 올 마스터'를 적당량 펴핑해 볼, 이마, 코 그리고 턱 순으로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펴 발라 준다. 잡티가 두드러진 곳이나 트러블 자국이 남아있는 부분은 한 번 더 덧바른 후 세심하게 제품 하나로 간편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해 준다.

아이메이크업은 깊고 그윽한 눈매로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 '아이톤 섀도우'는 보여지는 컬러 그대로 깨끗



하게 발색되는 아이섀도우로 덧발라도 탁해지지 않는 깨끗한 컬러 레이어링이 특징인 제품이다. 겔스버건디 컬러를 사용해 섀도우 브러시로 눈매를 따라 가볍게 터치한 후 경계가 지지 않도록 깨끗한 브러시나 손끝으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한다. 좀더 깊은 눈매를 표현하고 싶다면 '퍼펙트 아이즈 워너비 듀오라이너'를 사용해 속눈썹 사이를 꼼꼼히 메워준다. 깎아 쓰는 불편함이 없는 듀얼 오토타입의 '퍼펙트 아이즈 워너비 듀오라이너'는 슬라이딩 젤 텍스처가 한번의 발림으로 깊고 풍성한 컬러와 광택을 표현해주어 바쁜 아침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부끄러운 듯 물든 소녀의 볼처럼 사랑스러운 볼을 만들고 싶다면 '크리스탈 블러셔 17호 키스러버'를 추천한다. 피치를 살짝 머금은 로즈빛에 골드 펄이 더해져 자연스러운血色과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블러셔 제품으로 볼 중앙에만 동그랗게 바르는 것보다는 브러시로 가볍게 쓸어 넓은 부위에 얇게 펴 발라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아의 가을 메이크업은 선명한 레드 립으로 완성된다. 현아의 레드 립 메이크업 룩에 사용한 '키스러버 립 클릭 M02 겔스버건디'는 강렬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상큼한 레드 컬러로 얼굴을 한 톤 밝아 보이게 하는 자연스러운 립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제품 하단의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하루종일 사용할 정도의 양만 올라와 더욱 사용이 편리하다. 이번에 출시된 '키스러버 립 클릭'은 총 8종의 컬러로 매트한 컬러감과 달리 입술과 닿는 부분은 촉촉하고 가볍게 밀착되어 오랜 시간 선명한 컬러를 유지시켜 주는 매트 모이스타입 6종과 매끈하게 빛나는 글로시타입으로 촉촉해 보이는 입술을 연출해주는 글로우 에센셜 타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매트 모이스타입의 '겔스버건디'와 글로우 에센셜 타입의 '워너비코랄'은 이번 시즌 메이크업 트렌드를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컬러로 '겔스버건디'는 매혹적인 입술을 연출하는데 적합하고 '워너비코랄'로는 매끄럽고 사랑스러운 입술을 쉽게 연출할 수 있다. '키스러버 립 클릭'은 다양한 컬러와 함께 클릭 타입의 간편한 용기로 사용의 편리함까지 더해 이번 시즌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립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토니모리의 가을 신상 메이크업 아이템들로 과감하면서도 러블리한 가을 메이크업을 완성해 보자.

KLPGA 프로골퍼 서하경(회원번호 937)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나의

소중한

친구



골프라는 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나의 소중한 친구들을 소개하겠다.

골프는 지극히 개인적인 운동이다. 나의 혼자만의 실력을 펼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적 운동이고, 모두가 경쟁상대지만 골프를 하면서 나에게 주는 시절부터 함께 연습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다. 이들이 없었다면 나의 골프인생은 재미가 없었을 것 같다.

나에게는 친한 네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다. 박성현프로, 최민경프로, 백지희프로, 김누리프로 우리 모두 어렸을 때부터 한해에 열 개 넘짓되는 전국대회에서 많이 마주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프로가 되었다. 현재는 박성현 프로만 1부투어를 뛰고 있고, 나머지 우리는 2부투어에서 시합을 하면서 1부투어에 합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선의의 경쟁도 하고, 서로를 응원해주며 다섯명이 모두 1부투어를 뛰면서 함께 시합을 다닌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즐거울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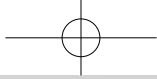
나의 소중한 친구 한명 한명을 자랑해 보겠다.

박성현프로 : 성현이는 장타다. 같이 연습만 해도 스윙스피드를 따라하게 되어 덩달아 거리가 늘게 된다. 내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성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린을 노릴 때 항상 우드만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표현력이 서툴러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친구.

최민경프로 : 추진력이 남다르다. 고민을 상담해도 해결이 빠르다. 시합 때 민경이랑 플레이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플레이 하는 모습이 참 침착하고 집중력이 좋다. 민경이와 플레이하게 되면 많이 배우게 된다.

백지희프로 : 작은 체구에서 드라이버 비거리가 엄청 나간다. 파워를 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던 친구다. 성실하고 끈기가 있고 푹 부러지는 친구다.





김수민 : 누리와 같이 연습하면 웃을 일이 많다. 쾌활하고, 엉뚱하면서도 매력이 넘친다.



우리의 일상

골프장을 나와 우리가 모이면 맛집을 찾아 먹으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일반 대학생 소녀들과 같이 수다월드가 펼쳐진다. 관심 있는 남자이야기, 연예인, 화장품, 옷, 등등 골프에 관한 얘기는 많지가 않다. 같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같은 길을 오랫동안 같이 걸어와서 인지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점을 얘기해주고 서로 레슨도 해주며, 서로를 도와준다. 다른 선수들이 우리들을 부러워 할 정도다.

먼 훗날 우리가 함께 나이들 먹으면서 오늘을 추억하며 골프를 같이 치는 날이 계속 되었음 좋겠다.



“

친구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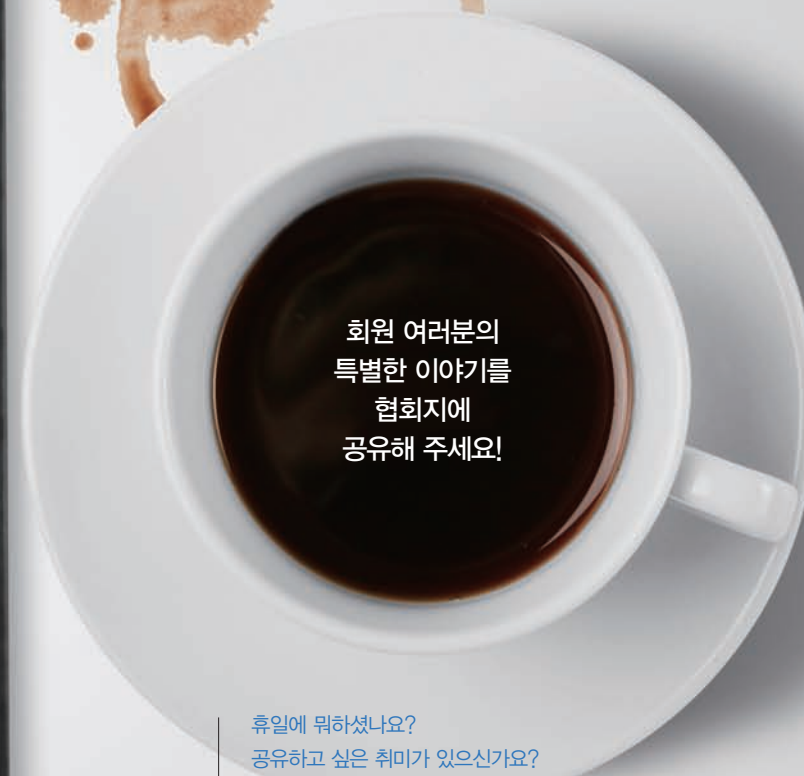
얼마 남지 않은 정규투어 시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우리 다같이 1부투어를 뛰어보자!

파이팅~~

”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협회지에
공유해 주세요!

휴일에 뭐하셨나요?

공유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KLPGA 협회지 'members talk'에 실어드립니다!

주말 나들이, 명절 준비, 취미 생활, 투어 뒷이야기,
나만의 건강관리 팁 등 소소한 일상부터
혼자 떠난 여행, 가족 행사, 생일파티 등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들까지
회원들과 나누어 보세요.
서로 몰랐던 일상을 공유하며 회원들끼리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은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의 자유주제 글과 관련 사진을
klpgamembers@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꾸며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승리를 부르는 우승 청부사 KLPGA 투어 캐디의 일상



글 _ 최현대
(KLPGA 명예기자)

투어에서 최종 우승을 확정 짓고는 바로 캐디와 포옹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현장 혹은 TV중계화면으로 볼 수 있다. 캐디는 승부의 세계에서 동거동락 하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투어 기간 가까워서 선수와 지내며 기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 상담사 역할도 수행한다. 그래서 선수의 우승은 캐디와의 공동성과라고 말하기도 한다.

해외에서 투어 전문 캐디는 선수의 명성과 맞먹는 경우가 꽤 있다. 골프의 살아있는 전설 잭 니클라우스와 그의 캐디인 윌리 피터슨은 무려 23년간을 함께 하면서 골프의 전설을 써내려왔고, 전성기 시절의 타이거우즈와 그의 캐디 스티브 윌리엄스는 12년 동안 동거동락 하면서 12개의 메이저 우승을 합작했다. 이후 호주의 아담 스콧의 캐디를 맡으면서 작년 마스터즈에서 곧바로 우승을 일궈내기도 했다. 불성실하고 기술이 부족한 캐디들로 골머리를 앓았던 최경주는 앤디 프로저를 만나면서 PGA 우승기록을 하나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제5의 메이저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자 '아내이자 가족'이라고 소개하면서 우승의 원동력으로 캐디에게 그 공을 돌렸다. 이후에 앤디 프로저가 60세를 넘기면서 체력적인 문제로 캐디직을 고사하자 최경주는 골프백을 가볍게 꾸리고 편하게 나설 수 있도록 했으며, 긴 휴가를 내주는 등 정성을 다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렇듯 투어 선수에게 있어서 캐디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해외의 경우 투어 전문 캐디들이 많으나 국내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히 드물었다. 그러다가 점차 투어 전문 캐디들이 등장하면서 선수 못지 않은 주목을 받기도 하고 있다. 올해 KLPGA 투어 캐디들 가운데 서정우, 정상옥 씨 등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승 제조기'로 불리며 올해 3승씩을 거둔 국내 투어 전문 캐디들이라는 것이다. 서정우 씨는 김대현, 배상문 캐

디를 거쳐 3년 전부터 장하나의 백을 메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올해는 김효주의 캐디로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 대회한국오픈'을 비롯해 3승을 일궈냈다. 정상옥 씨는 이보미를 필두로 정연주, 김세영을 거치면서 수많은 우승을 합작해 왔고, 올해는 신인인 백규정의 백을 메고 '메트라이프 · 한국경제 제36회 KLPGA 챔피언십'을 비롯해 3승을 합작해 냈다. 이렇듯 단순히 선수의 능력과 실력만으로 우승을 한다기 보다 특정 캐디가 도와줬을 때 우승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KLPGA 투어 캐디들의 일상은 어떠한가? 단순히 투어 기간 선수 백을 메면서 조언을 하고 클럽과 공을 닦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KLPGA투어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무조건 선수와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렇다고 월, 화, 수요일이 한가한 것도 아니다. 대회가 치러지는 코스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보통 대회 전 프로암 대회가 열리는 화요일에 도착해서 선수와 코스에 대한 일반적인 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요일 연습라운드 때에는 선수와 직접 코스를 돌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체크한다. 물론 월요일은 쉬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편히 쉬지도 못한다. 다음 대회가 열리는 골프장의 야디지 북을 제작하거나 미리 구성을 짜 놓아야 한다. 보통 대회가 열리기 전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야디지 북을 구매해 필요 사항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베테랑의 경우 자신이 직접 야디지

- 01 백규정 선수와 그의 캐디 정상옥씨가 KLPGA 선수권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 02 경기 전 퍼팅연습장에서 선수들을 점검하면서 기다리는 캐디들
- 03 서정우 캐디와 김효주 선수가 코스 공략에 대해 상의하고 있는 모습
- 04 야디지북을 점검하는 캐디



복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대회 종료 시점까지 일주일 내내 이 야디지 복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자신의 선수가 우승에 근접한 스코어에 도달하면 아침 일찍 다른 선수 조들이 출발할 때 함께 갤러리 코스로 따라다니며 그린의 핀 위치 등을 더 점검한 후 자신의 선수가 출발하기 전 다시 한번 조언을 해준다. 선수와 같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술은 거의 하지 않으며 탈이 날 것을 염려해 음식에도 신경을 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는 등 선수와 똑같은 컨디션 만들기를 한다.

정신적인 면에서 선수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선수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캐디를 뺀 자신의 잘못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경기중에는 클럽 선택이나 거리, 바람 등에 대한 상황에서 적지 않게 의견충돌이 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선수와 캐디의 호흡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선수의 심리적인 면까지 어루만져 주는 캐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선수들과 동거동락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어떨까? 해외나 국내 투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개 주급계약에 5~10%의 인센티브제가 기본이다. 즉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투어가 진행되면 이 4일간에 대한 수고비를 받고 만약 컷 탈락해서 금요일에 집을 쓴다면 2일간의 수고비를 받게 된다. 이는 기본급이라 생각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인데, 상금액의 몇 퍼센테이지

를 받도록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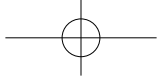
이는 선수 및 캐디들마다 각기 상이한데, 시즌 전 캐디와 선수가 협의 하에 정한다. 시즌 전 우승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상금액의 5%에 우승 시 10% 같은 조건이 캐디에게 유리하다거나 우승은 모르겠지만 컷 탈락 없이 탑10 내외로 꾸준할 것 같은 선수라는 판단이 들면 우승에 상관없이 무조건 7% 성과급 계약이 유리하다는 식이다.

하지만 시즌 상금액이 최소 5억원 이상 되는 KLPGA투어 선수는 몇몇 되질 않는다. 그래서 투어 규모가 큰 해외에서는 전문 캐디가 많은 반면 아직 국내에서는 그리 많지가 않다. 따라서 국내 투어 캐디들도 좀 더 환경적으로 선수와 마찬가지로 스폰을 받는 등의 부가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보다 많은 전문 캐디들이 등장할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골프팬들에게 생소한 캐디들의 세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투어를 보는 재미가 한층 더 상승될 것이다.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스코어카드를 제출하러 간 사이 땀을 식히는 캐디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캐디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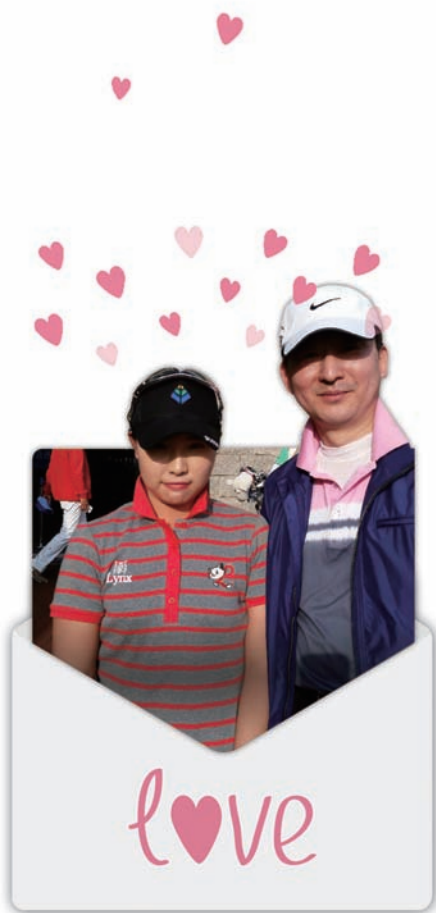
한가지 팁을 알려준다면, 보통 선수들은 3~4홀에 한번씩 공을 교체한다. 그리고 교체된 공은 백 속에 그대로 있다가 결국 누군가에게 선물로 나간다. 바로 이때가 캐디에게서 좋아하는 선수의 쓰던 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Fan Letter

그녀에게 전해주오



김보아 프로를 熱熱히 응원합니다.

KLPGA에서 팬레터를 전달해 준다가에 이렇게 팬을 들었네요, 사실 페이스북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직접 활자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우리 김보아 프로는 그러니까 2013년 6월인가 제 생일전후 날, 한국여자오픈에서 전인지 프로가 우승을 하고 김희망 프로가 캐디를 했었는데 김희망 프로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우연히. 대부분의 프로님들이 드림투어를 통해서 정규시합으로 가듯 김보아 프로도 정규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한참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드림투어 성적이 좋아서 정규시즌에 바로가길 소망했고, 정규 시드전에서는 순위에 들어서 또한 정규시즌 직행을 소망했으나, 1,2,3라운드를 잘 하고 마지막 4라운드에서 순위권 밖으로 나가서 저도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보다 김보아 프로는 더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렇게 시작된 응원이라면 응원이라까 벌써 1년을 넘기고 이렇게 팬레터로 응원의 마음을 보낼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 중간에 제가 응원하는 프로가 한 열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성적이 좋으신 슈퍼루키 3인방 외에 현재 여섯 명의 정규투어 프로님과 한 명의 점프투어 프로님을 응원하고 있네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모두, 항상 응원합니다. 알고보니 모두가 친구분들이잖아요 - 그런모습도 팬들이 보기에는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특별히, 김보아 프로 곁에 가서 직접 응원은 못하는 편이지만 지난 5월 우리투자증권 대회에 모처럼 아내와 함께 응원 갔을 때 단 번에 알아봐주는 보아프로에게 감사했습니다. 1라운드까 끝나고 직접 와서 응원에 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할 때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이후로 페이스북을 통한 응원만을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팬이 되다 보니 무엇이라도 하나더 챙겨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지만 마음뿐인 제가 미안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보아프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마음써주는 모습 또한 보기 좋았습니다.

올해 루키로 다른 프로들보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닐지라도 꾸준히 대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연습에 정진해서 꼭 좋은 결과 (우승이면 더 더욱 좋고)를 거두길 기원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KLPGA에는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하다보니, 정말로 우수한 프로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응원하는 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팬들이 부담이 아니라, 프로님들 자신 뿐 아니라 KLPGA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계획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우승하면 더욱 좋겠조!! 기회가 된다면 자주 나가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렇게 KLPGA협회의 팬레터 행사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김보아 프로뿐아니라 제가 또 응원하는 다른 5분의 파이팅을 전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맺을까 합니다.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신 KLPGA 관계자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최이진 프로님, 유고은 프로님, 이정화 프로님, 김민지 프로님, 오지현 프로님 그리고 전수빈 프로님.
(2015년엔 꼭 정규투어에서 봐요) 모두 ㅇ ㅏ ㅈ ㅏ ㅇ ㅏ ㅈ ㅏ !!! 화팅입니다.

선수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작성할 기회를 드립니다!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좋아하는 선수와 얽힌 특별한 추억 등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수 팬레터로 선정된 글 1편은 매 달 'KLPGA members' 지면에 실릴 예정이며, 선정되신 분께는 올해 협회지를 매 달 한 부씩 덕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의 팬레터를 klpgamembers@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은 물론 모자에 받은 싸인, 기념품 등을 찍어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해당 선수의 인증샷은 다음달 협회지에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분! 누구신지 알아요.
정말 완전 감동적이에요!

9월호 협회지에 실린 팬레터와
인증샷 찍는 백규정 프로





영어
Ryan 김(라이언 김) 강사

- A : I'd like to have a haircut.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요.
- B : Sure, ma'am. Did you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designer already?
네, 혹시 디자이너 분이랑 예약은 하셨나요?
- A : No, I was just passing by. Do I have to?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예약을 해야하나요?
- B : Normally, yes. However, it is slow at this moment so it's okay this time.
네, 보통은 예약을 하셔야해요.
하지만 지금은 한가하니 괜찮습니다.
- A : Thank you.
감사합니다.
- B : How would you like to style your hair?
머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 A : Oh, yeah. I have the picture in my cell phone.
Let me show you.
네, 제 핸드폰에 사진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Hair Styles>

- ① Trim : 다듬다 ② Layered cut : 층낸머리 ③ Perm : 파마
④ Blow dry : 드라이 ⑤ Bang : 일자앞머리
⑥ Side bang : 옆가르마 / 앞머리 ⑦ Upstyle : 틀어올림머리



일본어
김수진 강사

- A : いらっしゃいませ。ご予約はなさいましたか。
いらっしゃいませ。ご予約はなさいましたか。
いらっしゃいませ。ご予約はなさいましたか?
어서 오세요. 예약은 하셨나요?
- B : 予約はしてないんですが、すぐできますか。
よやくはしてないんですが、すぐできますか。
요아꾸와 시메 나인데스가, 스구 데끼마스까?
예약은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할 수 있을까요?
- A : はい、大丈夫です。
どんなスタイルになさいますか。
はい、だいじょうぶです。
どんなすたいるになさいますか。
하이, 다이조오부데스, 돈나 스타이르니 나사이마스까?
네, 괜찮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하시겠습니까?
- B : この写真のヘアスタイルにお願いできますか。
このしゃんのへあすたいるにおねがいできますか。
고노 샤닌노 헤아스타이르니 오네가이 데끼마스까?
이 헤어 스타일로 해 주세요.
- A :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先にシャンプー台までご案内します。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さきにしゃんぷーだいまでご案内します。
하이, 카시꼬마리마시따.
사키니 샴푸다이마데 고안나이 시마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샴푸실로 안내 하겠습니다.



중국어
권보민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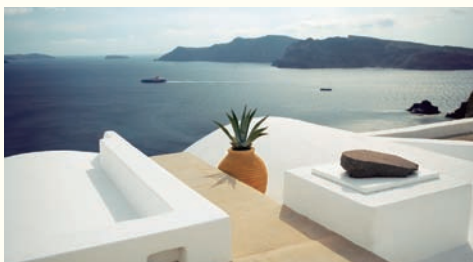
- A : 欢迎光临，你要剪发还是烫发?
Huānyíng guānglín, nǐ yào jiǎnfà háishi tàngfà?
어서 오세요! 손님 머리 자르실 건가요,
아니면 파마하실 건가요?
- B : 我想剪刘海，可不知道剪什么样的好看。
Wǒ xiǎng jiǎn liúhǎi, kě bùzhīdào jiǎn de.
앞머리 자르고 싶은데요,
어떻게 잘라야 예쁠지 모르겠어요.
- A : 最近很流行齐刘海，而且我觉得很适合你。
Zuì jìn hěn liúxíng qíliúhǎi,
érqiě wǒ juéde hěn shìhé nǐ.
요즘 뱅 스타일 앞머리가 유행인데요,
손님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 B : 是吗? 那我就试试吧。
Shì ma? Nà wǒ jiù shìshì ba.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 A : 好的，没问题。
Hǎo de, méi wèntí.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 파고다스타(www.pagodastar.com)



MEMBER'S SERVICE



골 프

골프사랑

기간 | 2012년 4월 1일 ~

혜택 | 골프사랑 전 여행상품(홈페이지 참조) 직원이 적용,
국내전세버스 장상요금의 10 ~ 15% 할인

담당자 | 김중석 과장 **연락처** | 031-284-7777

국내 전세버스는 가족회사 (주)삼일관광여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골프존아카데미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장상 판매가격에서 50% 할인(상성 / 목동지점제외)
이용가능 지점 - 서울: 공덕점, 발산역점, 중계점, 신반포점,
강남점 / - 경기: 서판교점, 행신점, 분당오리점, 정자동,
용인보정점, 김포사우점, 일산마두점, 남양주호평점
조건: 1일 1회(60분) 이용 - 등록 지점에 한함.

담당자 | 임동환 대리 **연락처** | 070-8640-6431

대영힐스 CC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그린피-69,000원,
프로요금 신설 이벤트(7/15~8/15)-그린피 50,000원,
단, 주말/공휴일은 그린피 할인 없음.

담당자 | 서병일 대리 **연락처** | 043-850-8601~3
그린피 할인을 위한 '대영힐스 CC' 프로등록 신청서를 제출

리앤리 CC

기간 | 2013년 5월 20일 ~ 2014년 12월 31일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1부 4인 1팀 기준
그린피 50% 할인, 당사 인터넷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예약만 가능
(전화예약 시 혜택 불가)

담당자 | 김만기 대리 (영업담당) **연락처** | 031-580-9021

롯데스카이힐 제주 CC

기간 | 2013년 5월 ~

혜택 |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내장 시 주중,
주말 그린피 20% 할인

담당자 | 진동석 (고객서비스팀) **연락처** | 064-731-2020

롯데 스카이힐 부여 CC

기간 | 2014년 8월 ~ 5월 31일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60,000원(50%할인),
동반자 96,000원(20%할인)

예약실 | 041-939-1701~4 **홈페이지** | www.skyhill.co.kr

레이크힐스안성 GC

기간 | 2014년 5월 1일 ~ 10월 30일

혜택 | 안성GC: 4인 입장 시 2인 무료, 3인 입장 시 1인 무료
안성리조트: 80,000원

담당자 | 류가형 매니저 **연락처** | 010-7292-2972

레이크힐스 용인 CC

기간 | 2012년 7월 15일 ~

혜택 | 정회원 내장 시 1인 정회원 대우, 그린피-정회원 23,000원,
주중회원 100,000원/ 연습장 이용시 KLPGA 정회원, 준회원 50%

담당자 | 영업운영팀 최남미 **연락처** | 1588-8186

무주안성 CC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KLPGA 정회원 - 그린피 50%(주중, 주말), 정회원간 2인
플레이 가중(주중, 주말), 숙소 무료제공(단, 정회원만 한함,
사전요청 시) KLPGA 준회원, 티칭회원 - 그린피 30%(주중, 주말)

담당자 | 유원식 실장 **연락처** | 063-320-3202

세라지오 CC

기간 | 2013년 8월 12일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25,000원 / 주말: 105,000원,
당사 회원과 동반 내장 시 주중: 105,000원 / 주말: 150,000원,
주말예약은 2부에만 가능, 주말 해당일 12일 전 이후 예약 가능
연락처 | 031-887-8780 (예약실)

스카이72 GC

기간 | 2005년 ~

혜택 | 1) KLPGA 정회원 중 전년도 상금순위 30위 까지: 자동타석 주중/
주말 90분 무료(1일 1회) - 추가 연장 시 자동타석 90분에 한해 50%할인
(1일 2회) / 2) KLPGA 정회원: 자동타석 주중/주말 90분 50% 할인(1일 2
회) / 3) KLPGA 준회원: 자동타석 주중/주말 90분 30% 할인(1일 2회)

담당자 | 스카이72 김형준 매니저 **연락처** | 1644-7222

스프링베일 GC

기간 | 2012년 ~

혜택 | 주중 18홀: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면제(동반자 2명일 경우 50% 할인)
주말 18홀: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50% 할인(동반자 2명일 경우 혜택 없음)
1팀 내 회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혜택.

담당자 | 프린트 **연락처** | 033-254-7900

신안골프레이닝센터

기간 | 2014년 7월 ~ 2014년 12월 31일

혜택 | 타석, 파3, bunker, 숏게임, 사우나 이용료 할인

연락처 | 031-673-8853 **홈페이지** | www.shinanc.co.kr

중원골프클럽

NEW

기간 | 2014년 9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그린피 면제
(4인 1팀 18홀 기준 / 27홀, 36홀 해당 없음)

연락처 | 043-849-7920~7922 **홈페이지** | www.joongwongolf.co.kr

오너스골프클럽

기간 | 2014년 3월 ~

혜택 | 주중 정상 그린피의 50% 적용 (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33-260-1918, 1919

옥스필드 CC

기간 | 2012년 4월 ~

혜택 | KLPGA 정회원 1명, 동반자 3명(4인 1팀) 내장 시
회원 1명 골프장 정회원 대우(그린피 23,000원)

담당자 | 예약실 박성민 **연락처** | 033-340-7700

우리들리조트 제주

기간 | 2012년 10월 ~

혜택 | 동반자 2~3인 내장 시 정회원: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그린피 50% / 준회원: 주중 그린피 50%, 주말 20% 할인

담당자 | 강유진 프로 **연락처** | 064-766-7802 / 010-9162-0207

파인비치골프링크스

기간 | 2014년 3월 ~

혜택 | 프로1명 + 비회원3명: 프로는 주중3만원/주말5만원,
동반자는 당일팀: 정상가 / 1박 2일팀: 패키지가 적용,
프로4명: 주중50% 할인, 프로 추천팀은 주중 2만원 할인,
단 카트비, 캐디피는 정상

담당자 | 문창식 대리 **연락처** | 063-320-3202

포천힐스 CC

기간 | 2013년 2월 11일~2014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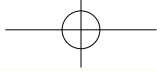
혜택 | KLPGA 회원 골프장 이용시 그린피 할인 혜택,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주중 그린피 할인
연락처 | 031-538-7000

태광 CC

기간 | 2013년 9월 9일 ~

혜택 | 퍼블릭(전시간대, 휴일포함) - 프로 1명 면제,
회원제(전시간대, 휴일제외) - 프로 1명 회원 대우
연락처 | 070-8189-6100 **홈페이지** | www.taekwangcc.co.kr
일반인3명 동반내장시 할인혜택은 1팀 1명에 한함.
접수시 회원증 제시

본 혜택은 KLPGA 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어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니 CC

기간 | 2012년~

혜택 | KLPGA 정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주중 6만원, 할인 혜택은 주중에 한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65-831-7010

한성 CC

기간 | 2014년 6월 25일 ~ 8월 31일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무료(4인 1팀 기준) / 전일 비회원 3명 동반시 무료

담당자 | 김종부 프로(011-706-7548) **연락처** | 031-284-3831~6
현재 평일 비회원 입장요금 190,000원

해피니스 CC

기간 | 2014년 3월~

혜택 | KLPGA 회원 골프장 이용시 그린피 할인 혜택
담당자 | 강해진 계장 **연락처** | 061-330-5001

힐드로사이CC

기간 | 2014년 8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50,000원(4인 1팀 기준)
담당자 | 이현아 주임 **연락처** | 033-439-3333 (유선예약만 가능)

휘닉스스프링스 CC

기간 | 2014년 4월 14일 ~ 2014년 12월 20일까지

혜택 | 담당자에게 문의

담당자 | 함대주 과장 **연락처** | 031-630-7021

360도 CC

기간 | 2013년 4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주중 50% 할인(4인 1팀 기준), 1일 1회 본인에 한하며 주중 잔여 타임에만 가능

담당자 | 윤준섭 주임(031-880-3612) **연락처** | 031-880-3600

해비치CC제주

기간 | 2014년 4월 ~

혜택 | 프로는 골프장 회원요금 / 동반자는 골프장 규정요금
연락처 | 프론트(064-766-6200), 익스프레스(064-780-8000)
홈페이지 | <http://golf.haevichi.com> (사전예약제로 운영)

의 료

서울위드치과

기간 | 2014년 2월 ~ 2015년 1월

혜택 | 구강검진, 스켈링 무상지원, 비보험 진료 10~20% 할인
담당자 | 정흥주 실장 **연락처** | 031-898-2282 (사전예약제로 운영)

세브란스체크업

NEW

기간 | 2014년 9월~

혜택 | 1)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을 위한 패키지검진
2) 지방 고객에 한하여 KTX 편도 금액 상당의 할인 혜택 제공 (영수증 지참 必)
3) 희망 고객에 한하여 검진 후 영상기록 무료 제공
4) 신속한 상담 및 예약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5) 서비스 대상자가 추가 진료 필요 시 우선진료(Fast Track) 시스템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으로 신속한 연계 진료 제공
연락처 | 1588-7757 (사전예약제로 예약 필수)
위치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4, 5층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솔 병원

기간 | 2014년 4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혜택 | 2014년 KLPGA 주최, 주관 전 대회 전담의무팀 (애플런스, 간호사, 트레이너) 파견 / KLPGA 회원 대상 진료 및 종합검진 프로그램 혜택 제공 / 진료 및 재활치료비 감액(20 ~ 30% / 단, 비급여 항목에 한 함) / 골프검진 프로그램 지원(정규투어 시드권자 및 당해연도 정규투어 출전 경력이 있는 선수 연 1회 무상 지원), 종합검진 시 최대한의 편의 제공
담당자 | 박상곤 원무과장 **연락처** | 02-2064-7575

이스턴 치과의원

기간 | 2012년 11월 ~ 2014년 12월

혜택 | 구강검진 및 상담, 치료 및 사후 관리,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담당자 | 김민서 실장 **연락처** | 02-553-2804

하늘안과의원

기간 | 2012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

혜택 | 첨단 안 종합검사 무료(50여가지 검사), ONE - DAY 수술 가능(추가비용 없음), 웨이브프론트 무료(30만원 상당), 수술희망시 제휴특가 KLPGA 회원 및 임직원 대상 시력교정시술 할인
연락처 | 02-573-9779 사전예약제로 운영.

생 활 / 문 화

파인비치골프링크스

기간 | 2014년 3월~

혜택 | 프로1명+비회원3명 : 프로는 주중3만원/주말5만원, 동반자는 당일 : 정상가/1박2일팀 : 패키지가 적용, 프로4명 : 주중50% 할인, 프로 추천팀은 주중 2만원 할인, 단 카트비, 캐디피는 정상
담당자 | 문창식 대리 **연락처** | 063-320-3202

군산 오스카스위트 호텔

기간 | 2014년 6월 11일 ~ 2015년 6월 11일

혜택 | 디럭스 더블 / 정사가 110,000원→할인가 60,000원
디럭스 트윈 / 정 사가 121,000원→할인가 60,000원
스위트 더블 / 정사가 143,000원→할인가 88,000원
스위트 트윈 / 정사가 154,000원→할인가 105,000원
스위트 트리플 / 정사가 220,000원→할인가 135,000원
로얄테라스 스위트 / 정사가 220,000원→할인가 135,000원 등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스위트 더블 2인 기준 /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 한 객실 추가 투숙 시, 1인 당 객실요금 10,000원, 조식 10,000원 제공
담당자 | 박진만 지배인 **연락처** | 063-464-0505~6

그랜드컨벤션센터

기간 | 2013년 6월 ~ 선착순 50팀

혜택 | KLPGA 회원 각 직계 부모, 자녀 예식, 교회연 / 돌잔치 할인 / 계약 순서에 따라 50팀
담당자 | 유미영 차장, 신경선 과장 **연락처** | 02-3667-9000, 7776

까라디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까라디에서 제공하는 헤어, 메이크업 관련 모든 서비스, 정가의 50% 할인
담당자 | 이창현 이사 **연락처** | 010-4050-3636
도산점, 이촌점, 테크노마트점에서만 가능

넥센타이어

기간 | 2014년 9월 30일까지

혜택 | 타이어 할인(무상 장착, 무상 배송)
1. N-FER(최고급 타이어)/N-BLUET(친환경 타이어) 40%이상 할인
2. 주유 상품권 증정 : 2보 구매 시 1장, 4보 구매 시 2장
담당자 | 넥센 본사 온라인 직영을 AP 엔터프라이즈 이인규 대표 **연락처** | 010-2335-3560

레드캡투어

기간 | 2012년 9월~

혜택 | 일반 여행 상품 최대 9% 할인, 하니문 최대 10% 할인, 직계가족, 대리 예약 등, 무이자 혜택 서비스
담당팀 | 레드캡투어 마케팅팀 **연락처** | 02-2001-4500
신규 KLPGA 회원의 경우, 상단 연락처로 문의 부탁 드리며, 기존 KLPGA 회원의 경우 ID 및 패스워드는 KLPGA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베니키아 호텔 문막

기간 | 2014년 8월 ~ 2015년 3월 31일

혜택 | 스탠다트(2인) 154,000원 → 주중 60,000원, 주말 60,000원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기존 투숙인원 추가시 1명 당 10,000원 추가(7세 이상)
담당자 | 김주선 총지배인
연락처 | 033-734-7315
홈페이지 | www.munmakhotel.co.kr

세계골프역사박물관

NEW

기간 | 2014년 10월~

혜택 | KLPGA 회원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관람 시 무료 입장
담당자 | 이동은 학예사
연락처 | 02-2192-3005
개관시간 | 월~토 10시 30분~19시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8 슈퍼리어타워 지하2층
KLPGA회원임을 밝혀주시고,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웰리힐리파크(구.성우리조트)

기간 | 2012년 12월 1일~

혜택 | 객실이용시 기간별 특별요금으로 제공
객실예약 | <http://www.wellihillipark.com/partnership/>
객실정산문의 | 1544-8833(ARS 1번)

제주 항공우주 호텔

기간 | 2014년 5월 ~ 2015년 12월 31일

혜택 | 슈퍼리어(9평) : 주중 70,000원, 주말 90,000원
디럭스(13평) : 주중 80,000원, 주말 100,000원
객실예약 | 064-747-4900
성수기(7/18 ~ 8/17) 별도 요금 적용

청풍리조트

기간 | 2014년 12월까지

혜택 | 객실(23㎡, 스탠다드 트윈/온돌) / 정상 요금 : 111,000원 할인
요금(VAT포함) / 주중(일~목) : 60,000원,
주말(금, 토) : 70,000원
담당자 | 박종미 **연락처** | 02-422-8100

풍림리조트 제주

기간 | 2014년 12월까지

혜택 | 객실(85㎡, 스탠다드 한라산전망) / 정상 요금 : 330,000원 할인
요금(VAT포함) / 주중(일~목) : 88,000원 / 주말(금, 토) : 99,000원
담당자 | 김성은, 유선영, 조은비
연락처 | 1855-3868

풍림리조트 청평

기간 | 2014년 12월까지

혜택 | 객실(85㎡, 객실구분 없음)
정상 요금 : 250,000원 할인 요금(VAT포함)
주중(일~수) : 60,000원, 주말(목~토) : 80,000원
담당자 | 김성은, 유선영, 조은비
연락처 | 1855-3868

본 혜택은 KLPGA 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어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LPGA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 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EMBER'S NEWS



어 학

파고다 어학원

기간 | 2013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

혜택 | KLPGA 회원 매달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제공
오프라인 1강좌 + 온라인 2강좌 무료 수강

〈오프라인 강좌 (월 1과목 수강 가능)〉

- 파고다 어학원 4개 지점(강남점, 종로점, 신촌점, 부산점)
- 각 지점 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 및 회원증 지참 필수
- 수강 가능연령 30세 이하(84년 이후 출생)로 제한

〈온라인 강좌 (월 2과목 수강 가능)〉

- KLPGA 홈페이지-멤버존-외국어교육 배너 클릭 후 수강 등록
- 수강 가능연령 제한 없이 전 회원 가능

신청기간 | 매월 17일~익월 10일

담당자 | 교영순 대리

연락처 | 02-6907-2857

수업(온라인, 오프라인) 진도율 70%, 미달일 경우 :

1년 간 지원 중단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온라인, 오프라인)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잉글리쉬 솔루션

기간 | 2013년 12월~14년 3월/4월~7월/8월~11월(연 3회)

혜택 | KLPGA 회원 무료 전화영어교육 지원

1) 모집인원 : 50명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2) 교육기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주3회 교육) /

매일 06:00 ~ 24:00 중 선택

3) 교육지원 : 주3회 10분(58,800원) 교육 100% 협회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담당자 | KLPGA 김민주 대리

연락처 | 02-560-4426, 02-539-6003(fax)

manjoo@klpga.org

홈페이지 | http://www.timetotalk.co.kr

1) 70% 이상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자동 지원 중단되며,
출석을 미달 시점을 기산 월로 차후 1년간 전화영어교육
지원 중단(수업 연기 불가)

2) 매달 지원중단자에 대한 공석은 대기순위자로 대체
(신규모집 시 대기순위 부여)

금 융

하나SK카드

기간 | 2008년~

혜택 | KLPGA 플레티늄 카드 부가서비스

1) 연회비 : 신규 발급 시 초년도 10만원(발급 후

6개월 내 12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10만원 캐쉬백), 이후 2년차부터 연회비 평생 면제

2) 3개월 무이자 할부 : 할부 가능한 전가맹점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3)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PriorityPassCard 발급)

- 플레티늄 카드에 한해 본인/가족 카드 자동 발급

4) 인천공항 허브 라운지 할인 서비스 :

플레티늄카드 소지 고객 본인 20% 할인

5) 여행상품 할인서비스(지정 예약처 : 02-714-3434)

- 국제선 항공권7%, 국내선5%, 해외패키지7% 할인

6) 발렛파킹 : 인천공항 월 3회(주차비 별도),

특급호텔 월 3회(1일 3시간 무료주차)

7) 특급호텔 : 10~30% 할인 서비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롯데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 등)

8) S-OIL 리터당 50원 할인(LPG제외), 횡수 무제한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교환시 할인(2만 5천 원)

9) 영화 할인 서비스(통합 월 1회) : CGV, 메가박스,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10)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통합 연 4회) :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롯데월드, 대전꿈돌이랜드 등

11) 보험 : 해외여행 최고 5억 원, 휴일교통상해보험

최고 7천5백만 원, 골프용품손해보험

최고 2백50만 원, 홀인원상금보험 50만 원

(장규 파3홀/연 1회)

담당자 | 하나SK카드 플레티늄 고객센터

연락처 | 080-220-5300

※ 2014년 6월 1일 신규 발급분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으로 인하여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나SK카드 신규 발급 시에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며, 기
존에 하나SK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 중 KLPGA 플레티늄 카드를
신청하시면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

김기성 세무사

기간 | 2013년 5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및 가족을 위한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세무조사 지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가장대행 및 세무컨설팅.

법인, 부가, 소득, 양도, 상속, 증여세 신고대행 및 상담

문의 | 김기성 세무사 연락처 | 02) 516-7745

개 업



정은아(회원번호 143)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 하이브랜드 3층 커터앤백

연락처 | 02-2155-1410

KLPGA 소속 프로 10% 추가 할인

최유진(회원번호 S0602)

장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오목들길 8번지 호반골프연습장

연락처 | 033-257-0788

한정미(회원번호 129)

장소 |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251-1 조광골프연습장 내 2층

조광스포츠테라피(골퍼전문 스포츠 마사지)

연락처 | 031-768-0888

결 혼



윤초혜(회원번호 S0438)

날짜 | 10월 4일(토) 오후 3시

연락처 | 대전 유성컨벤션웨딩 3층 그랜드홀